

광 고

원양산업

제 1124 호

(2020년 8월 15일 발간)

창간 :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 (비매품)

Contents



협회소식

- NGO 등 대응 관련 제2차 TF 회의 개최 4 /
- 아그네스수산 '아그네스 110호', 진수식 개최 5 /

■ 협회 7월 주요 업무 추진 동향 6 /

■ 오징어 요리 만들기

(오징어 빵가루 튀김)

3 /

- FAD 금지, 방콕 가다랑어 어가 상승 견인 12
- 올해 EU, 베트남산 참치캔 무관세 물량 4,792톤 배정 17
- 완전 양식 참다랑어 조기 채란에 성공 22
- 참다랑어로 세계 최초 MSC 취득 27
- 외국인 소유 솔로몬 국적 선망선 어획량 최대 32
- 코로나19, 세계 참치 어획량에 어느 정도 영향? 42
- 태평양 횡감용 참치 산업, 식품 서비스 폐쇄로 고통 47
- 스페인 증서부태평양 조업 참치, 만타 유입 감소 52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

- '20년 7월 보고 내용 11

■ 오징어어업 동향

- 일본 신선 살오징어 어장 가나자와에서 북상 62
- 日 신선 살오징어 어획량 40% 감소한 1,400톤 67
- 일본 이시카와 중심으로 살오징어 어획 계속 72
- 올해 아르헨티나 오징어 어획량 최고 수준 72
- 동해 오징어 '급감' 알고보니...중국 유령 선단이 16만톤 '씩쓸이' 78
- 일본 선동 빨강오징어, 하치노헤항에서 전년比 20% 하락 출발 79
- 日 가나자와항 신선 살오징어 계속 어획, 하루 80톤도 잡아 84



해외수산정보

■ 참치어업 동향

- 어장폐쇄 시작, 만타 가다랑어 어가 상승 가속화 91/
- 달러 약세로 EU 참치 수입업자 혜택 97

Contents

■ 끽치어업 동향

- 日 끽치 최악 수준 흉어 예츿 0
- 日 끽치 지난해 밀도는 내유, 심각한 흉어 예상 13

■ 명태어업 동향

- GAPP, 명태 신상품 개발, 미·영 기업과 실시 23
- 일본 명태 이번 어기 쿼터 6.5만톤 2
- Russian Fishery, 새로운 명태 시장 공략 3
- 기후변화로 명태 어획~가공공장 거리 멀어져 33

■ 일본 수산 동향

- 일본 주요 수산식품 4개사 니치레이만 이익 증가3
- 코로나로 “조리 시간 늘었다” 전체의 32.9% 53
- 일본 「재고 통계」 2020년 5월말 53,
- 日 원양어선 지원 요청, 자민당 의원 연맹이 아소 총리에게 건의 6
- 일본 고통어 수출 1~6월 11% 감소, 11만톤 미 63
- 양식 참돔으로 세계 최초 ASC 취득 7
- 2019년도 어패류 자급률 3% 포인트 하락 56% 73
- 수산업 코로나로 33% 매출 감소 응답 8
- 일본 DHA 등 기능성 소재 시장 약 4% 증가 9
- 일본 슈퍼 수산 6% 매출 증가 5개월 연속 신장 93
- 새우 세포 배양 육, 저비용으로 대량 생산 연구 시 94
- 일본 체인스토어협회 참치와 돔 호조, 생가다랑어는 저 94

■ 각국 수산 동향

- 아르헨티나, 포클랜드 해외 영토 지정 관련 EU 압박 1
- 나미비아 정부, 쿼터 경매 실시 14
- 대구, 겨울 동안 베링해에 머물지 않을 수도 24
- 연어 머니, 노르웨이 대구 양식에 재투입 34
- 모리타니 대일 수출 냉동 문어 가격 동결 34
- 인도산 바나메이(흰다리새우) 20% 감소 44
- 중국, 개도국 선박에 수산보조금 지원 지속 주장54
- 신선 대서양 연어 전주 대비 1% 하락한 52.23 크로네 64
- 새우 신종 바이러스가 기승 64
- 러시아 어업 대기업 계열사, 극동 계 어업 협회 가 71
- 노르웨이 수산물 수출 상반기 3.5% 증가한 529억 크로네 84

■ 쉬어가는 난 (詩)

- 바다 <나희덕> 94

■ 국내 수산 뉴스

-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ODA) 전문기관 지정 추 05
- 2020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동향 발표15
- 해기사 현장실습생의 권리보호를 위한 과태료 신설
- 올해 상반기 연근해 어업생산량 전년보다 4.6% 감소 25
- 코로나19로 인한 수산업계 위기, 정부 추가 지원 35
- 총 300억 원 규모의 수산분야 벤처창업펀드 최초 결 45

NGO 등 대응 관련 제2차 TF 회의 개최 인권분야 개선점 논의



우리 협회는 지난 7월 15일에 개최한 'NGO 등 대응 관련 제1차 TF 회의'에 이어 8월 15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TF 회의에는 경양수산(주) 이정호 이사, 동원산업(주) 민병구 전무, 동원수산(주) 최상진 대리, 사조산업(주) 김치곤 전무, 신라교역(주) 안길환 부장, 정일산업(주) 지건웅 부장, 우리 협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TF팀은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언어 및 물리적 폭력 금지, 차별 오해소지 차단, 급여 체불 및 송출회사의 공제 방지에 이어 최소 휴식시간 관련 노동시간 개선, 장기 조업, 기타 주거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 등 인권분야 개선점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TF팀은 원양산업 내 인권 및 환경 보호 문화의 정착을 위해 원양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함을 공감하였고 빠른 시일 내에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리 협회는 이날 회의의 결과에 따라 '원양어선 선상·육상직원 교육'을 오는 9월 1일 오후 2시부터 부경대학교 미래관(소민홀)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나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교육 일정을 무기 연기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교육은 미래지향적 원양산업 구축 목표하에 선상·육상 직원이 최초로 모이는 자리로 선원 인권보호, 보존조치 동향, 경제좌표 준수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제3차 TF 회의는 오는 9월 2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아그네스수산 ‘아그네스 110호’, 진수식 개최

박희웅 회장, 허옥희 대표, 협회 윤명길 회장 등 100여명 참석



아그네스수산(주)는 지난 7월 17일 아그네스수산(주) 박희웅 회장, 허옥희 대표, 우리 협회 윤명길 회장, 해양수산부 관계자, 건조사인 (주)강남 임직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2미터급 원양오징어채낚기 어선 ‘아그네스 110호’의 진수 명명식을 개최했다.

아그네스수산(주)는 2019년 7월 강남조선과 채낚기선 신조 계약을 체결하고 11월에 착공하여 8개월 만에 진수했다. 아그네스수산(주)는 원양어선 안전펀드 지원사업을 활용해 동 선박 건조금액의 50%(60억 원)를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원 받았다. ‘아그네스 110호’는 원양어선 안전펀드 조성 이후 건조된 첫 번째 선박이다.

원양어선 안전펀드 지원사업은 2023년까지 총 1,700억 원(정부 출자 8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원하

는 사업이다.

승진수산의 801승진호도 원양어선 안전펀드 사업으로 아그네스 110호와 함께 조만간 건조 완료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는 올해 노후 원양어선 4척의 대체 건조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아그네스 110호’는 1974년 건조된 기존 선박 ‘아그네스 105호’를 대체하기 위해 설계된 어선으로 제원은 총 499톤, 전장 72.85미터, 폭 11미터, 깊

이 7.2미터, 항해속력 14노트, 승선인원 39명이고 최신 공중집어등, 조상기와 냉동설비 및 어군탐지기, 레이더, 위성통신장비 등의 장비가 탑재돼 2020년 10월 15일 인도, 12월부터는 포클랜드 해역에서 조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그네스수산(주) 박희웅 회장은 감사 인사를 통해 『원양산업의 앞길을 밝혀야 된다는 책임감이 오늘 이렇게 진수식과 명명식으로 이어지게 되어 감회가 더욱 새롭다』며 『무엇보다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현대화 펀드 사업 추진과 우리은행, (주)강남, 세계로선박금융 등의 열정적인 지원에 힘입어 오늘의 아그네스 110호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회장은 『아그네스 110호가 성공적으로 진수돼 기쁘다』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인도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협회 7월 주요 업무 추진 동향

경영지원본부

기획총무부

- 협회장, 수산정책실장 방문 면담
 - 일시/장소 : '20.7.23, 14:00 / 해수부
 - 참석자 : 해수부 엄기두 수산정책실장 / 협회장, 양임원
 - 내용 : 원양어업경영자금 금리인하 및 원양업계 TF 운영, 선박 안전펀드 지원확대, ILO 협약 (C188) 관련 등 논의
- 해수부 수산정책관 협회 방문 면담
 - 일시/장소 : '20.8.13, 17:00 / 협회본부
 - 참석자 : 해수부 이경규 수산정책관, 양영진 원양산업과장, 서민혜 사무관 / 협회 양 임원 등
 - 내용 : 협회 일반현황 및 원양산업 주요현황 소개와 현안사항 의견교환 등
- '20.8월 원양어업경영자금 운영위원회 개최
 - 일자/장소 : '20.8.5 / 협회
 - 참석자 : 운영위원회 위원(6인)
 - 내용 : 6척 57.36억원 원안의결
- 원양어업경영자금 금리인하 알림(8.7/전 회원사)
 - 금리 : 종전 3% ⇒ 2%(1%p 인하) / 중소기업 대상
 - 기간 : 1년간('20.8.10~'21.8.9) 한시적 인하
 - ※ 수산분야 코로나-19 대응 제4차 추가대책 추가 결정 예산에 원양업계도 포함
- 2020 원양산업통계연보 발간 관련 업무추진
 - 통계연보 1차 교정
- '20년 6월분 원양어획물 생산실적 분석

구분	생산량(M/T)	전년비(%)
합계	228,395	85%
- 참 치	148,433	76%
· 횡감용	19,146	97%
· 통조림용	129,288	74%
- 명 태	3,826	89%
- 오징어	33,348	239%
- 꽁 치	133	5%
- 기 타	42,654	79%

- 수산물 유통·수급 TF 관련 업무추진(해수부)
 - 코로나19 관련 해수부 수산정책과에서 수산업 유통수급 TF 구성 및 월간단위 자료 제출 요청
 - 협회는 원양수산물 양륙량 관련 통계 제공
- '20년 수익사업 중간 결산 세무조정 업무추진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부속 명세서 작성 등

회원지원부

- 코로나19관련 업무추진
 - 가. 선원교대를 위한 임시 생활시설 설치·운영방안 설명회 참석
 - 일시/장소 : '20.7.7, 14:00-16:00 / 부산지방 해양수산청
 - 참석자 : 해수부 선원정책과, 선주단체 / 회원지원부 차장
 - 내용 : 선원교대, 임시 생활시설 설치·운영방안 등
 - 나. 의료봉사단체 방문
 - 일시/장소 : '20.7.15, 14:30-15:10 / 열린의사회
 - 참석자 : 열린의사회 담당, 동원산업 박상진 상무 / 회원지원부 부장
 - 내용 : 원양어선에 의료진 파견 관련 협의

다. 코로나19 항만 검역 관리 방안 변경안내
(전화원사/7.6)

- (격리예외) 입항 전 14일 이상 ① 선박에서만 체류하고 ② 선원교대 및 승·하선 이력이 없고 ③ 유증상자 및 환자 발생 등이 없는 선박 내 선원

라.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 개정 안내(전화원사/7.8)

- 하선자 전수 진단검사, 14일 미만 항해 선원 시설 또는 자가격리

마. 외국인선원 전담 임시생활시설 운영방안 알림
(전화원사/7.13)

- 항만 입국 예정일 10일전 시설 사전예약 및 입항 48시간 전 외국인 선원 하선예정자 리스트 제출

바. 코로나19 확산방지 관련 조치 및 유의사항 알림
(전화원사/7.16)

- 7월24일부터 선원비자 발급 후에만 입국 가능 등

사. 코로나19 관련 협의회(1차) 참석

- 일시/장소 : '20.7.22, 14:00-15:00 / 세종시
- 참석자 : 원양산업과장 및 원양업계 / 회원지원부

아. 러시아 출항 국내 입항 선박 대상 검역 강화 시행
안내(전화원사/7.20)

- 국내 항만자와 접촉이 많은 선박의 선원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

자. 코로나19 항만검역소 승선검역 대상 선박 조정
시행 안내(전화원사/7.20)

- 입항 국가 관계없이 입항일 기준 14일 이내 선원 교대 등으로 승선자가 있는 경우 승선검역 실시

차. 코로나19 확산방지 관련 선원 하선 시 유의사항
알림(회원사/7.20)

- 격리시설 혹은 공항 등으로 이동과정에서 외국인선원 불법이탈 발생하지 않도록 인원체크 철저 등 안내

카. 코로나19관련 항만 방역관리 절차 변경안내
(회원사/7.22)

- 14일간 외부접촉이 일체 없는 선박의 경우 격리 면제 가능 시점을 '입항시점' 기준에서 '접안시점' 기준으로 변경하여 적용

타. 임시생활시설을 통한 외국인선원 격리조치에
따른 협조사항 알림(전화원사/7.24)

- 입소예정 4일전부터 사전신청, 입퇴소는 시설 지하주차장 이용 등

파. 러시아 기항 선박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협조
요청(전화원사/7.24)

- 불필요한 선원교대 및 하선행위 금지 등

하. 코로나19 관련 협의회(2차) 참석

- 일시/장소 : '20.7.31, 11:00-13:00 / 협회
- 참석자 : 해수부 원양산업과장 및 원양업계 / 회원지원부

○ 2020년 임금교섭관련 업무추진

가. 노사양위원회장간 간담회

- 일시/장소 : '20.7.13, 12:00 / 부산
- 참석자 : 노·사 양위원장/ 이진무, 회원지원부장
- 내용 : 20년도 임금교섭부의안 협의

나. 2020년 임금교섭관련 자료 조사(해당선사/7.14)

- 선박정산, 보험금 및 외국인 혼승금부 관련 자료

다. 제4차 노사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0.7.24, 15:00-17:00 / 협회
- 참석자 : 노사위원 / 이진무, 회원지원부 차장
- 내용 : 2020년도 임금교섭부의안 및 현안사항 협의

라. 제5차 노사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0.7.30, 12:00-14:00 / 협회
- 참석자 : 노사위원 / 회원지원부장, 차장
- 내용 : 2020년도 임금교섭부의안 및 현안사항 협의

마. 제2차 노사단체교섭협의회 개최

- 일시/장소 : '20.7.30, 14:00-17:00 / 협회
- 참석자 : 노·사 교섭위원 / 회원지원부장, 차장
- 내용 : 2020년도 임금교섭부의안 및 현안사항 협의

○ 2020년 FTA 직접피해보전 제도 관련 업무추진

가. 설명회 참석

- 일시/장소 : '20.7.22, 10:30-12:30 / 대전시
- 참석자 : 해수부 수산정책과, 사·도 담당자, KMI, 수협 등 / 회원지원부 과장

- 내용 : 사업시행지침 설명 등
- 나. 제도 및 관외생산확인서 제출 알림(전화원사 /7.30)
 - 대상 품목 : 멧게, 민대구, 전갱이, 새우, 조기
- 2020년도 해외선원모지관리 사업 관련업무 추진
- 가. 2020년도 해외선원모지관리 사업 추가 수요 결과 알림(해당 지역/7.8)
 - 사모아 및 앙골라 지역 모지관리사업 추가 승인
- 나. 2차 교부금 신청서 제출(해수부/7.10) 및 승인
- 승선근무예비역 관련 업무추진
 - 2021년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 조정에 따른 필요인원 신청명부 및 선박관리명부 제출 (해수부 /7.27)
 - 2021년 53명배정 (전년대비△2)
- 외국인선원 근로실태 설문 면담 건
 - 일시/장소 : '20.7.29, 11:00-15:00 /부산 외국 인선원복지교육원
 - 참석자 : 인권위, NGO, 해수부, 원양노조 / 회원지원부 부장
 - 내용 : 베트남 선원에 대한 설문면담 실시
- 119 해상응급의료서비스 확대운영 알림(회원사 /7.20)
 - 카카오톡을 활용한 “119해상응급의료상담 서비스”를 20.7.22부터 운영함을 안내함.
- 해적관련 업무추진
- 가. 서아프리카 위험예비해역 통항 시 해적경계활동 강화 요청(전화원사/7.6)
- 나. 2020년 7월 청해부대 선박 호송계획 알림(전화원사/7.6)
- 다.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상보안센터 주간보고서 공유(전화원사/7.17)○ 6월 수출실적 확인
- 라. 서아프리카 조업 선박 선원정보 제출(해수부 /7.20)
- 마. 서아프리카 위험예비해역 해적피해예방 지침 이행 강화 요청(전화원사/7.20)
- 바. 서아프리카 해역 해적피해예방 관련 대책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0.7.22, 15:00-16:00 /해수부
- 참석자 : 원양산업과장 등, 동양수산, 동원산업, 신라교역 / 회원지원부장
- 내용 : 합작법인 정보관리, 위험해역 조업 자제 방안 논의 등
- 사. '20년 7월 청해부대 선박 호송계획 변경 및 9월 계획 알림(전화원사/7.21)
- 아.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상보안센터 주간 보고서 공유(전화원사/7.24, 7/31)
- 자. 서아프리카 고위험해역 통항 및 조업제한 요청 (전화원사/7.31)

홍보·마케팅지원센터

- 원양산업지 7월호(제1123호) 제작
 - 협회소식 4건(협회 회장단 간담회 등)
 - 국내소식 9건, 해외수산정보 50건
 - 명예해양수산물 보고사항, 협회 업무 동향 등 정리
 - 교정 및 편집 의뢰, 인쇄 및 발송(124개소 320권)
- 원양산업 정보&뉴스 관련 업무 추진
- 가. 원양산업 정보&뉴스 제공(63호 7.8, 64호 7.15, 65호 7.22, 66호 7.29 / 회원사 임직원 카카오톡 및 이메일 송부, 홈페이지 게시)
 - 제63호 정보 14건(태평양 도서국들 안정적 수입은 조업일수 뿐/ 미국 수리미 하급품 30 엔 하락 / 일본 살오징어 5월 조업 1% 증가 등)
 - 제64호 정보 10건(에과도르 참치 가공·어업 코로나19 영향/ 러시아 올해 명태 TAC 추가 배정 결정/ 美 오징어어업 2개사 MSC 획득 등)
 - 제65호 정보 9건(코로나19, 세계 참치 어획량에 영향/ 일본 가나지와항 신선 살오징어 어획/ 노르웨이 상반기 수산물 수출 등)
 - 제66호 정보 14건(솔로몬 국적 선망선 어획량 최대/ Russian Fishery, 새로운 명태 시장 공략 / 아르헨티나 오징어 어획량 최고수준 등)
 - 각 호 조업 동향, 유가정보 취합

- 무사증 입국 금지 조치로 조업 중단 위기 홍보 (부산 KBS)
 - 교대선원 무사증 입국 금지(7.24)로 원양업계 조업중단 위기 및 외국인 선원 14일간 격리로 이중삼중고 홍보
 - 박길주 노사위원장 부산KBS 인터뷰(7.17, 경양수산)
 - * 이동욱 전무, 소기동 차장 배석
 - 원양어선 안전성 보도자료 작성, 홍보
 - ‘선령에 관계없이 관리 잘하면 안전하고 쾌적한 선상생활 가능’ 보도자료 작성(7.14, 수산전문지)
 - 수산신문(7.20) 2면, 수산인신문(7.20) 2면, 어민신문(7.20) 6면 보도
 - 원양선사 TF팀 구성 홍보
 - ‘원양업계, TF팀 구성해 제1차 회의 개최’ 보도자료 작성(7.16 수산전문지)
 - 수산신문(7.20) 2면, 수산인신문(7.20) 3면, 어민신문(7.20) 5면 보도
 - 원양 어획물 제품 개발 관련, 경기대학교 방문·협의
 - 일시/장소 : ‘20.7.20, 11:00/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서울)
 - 참석자 : 경기대학교 김기영 평생교육원 원장 (외식산업경영학과 교수), 김종성 교양학부 교수/ 홍보센터 김현태 이사, 김영수 과장
- 내용**

시행방안	내용
회원사 + 경기대학교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사 필요 기술 개발 연구 ●국가R&D사업(KIMST등) 신청 고려
회원사 + 경기대학교 산학협력 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사 제안 과제로 산학협력 강의 (캡스톤디자인) 실시, 제출된 팀 프로젝트 결과물(작품) 활용 ●제품 단계별 홍보(강의 개설, 최종 보고회, 출시 등)
회원사 + 경기대학교 신제품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제품 품평회, 네이밍 공모전 등 개최 ●대학교와 협력 스토리 입혀 홍보, 학교 측 홍보 인프라 활용

- 해양수산업 홍보현황 공유 등을 위한 영상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0.7.30, 14:00/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양수산부 디지털소통팀, 유관기관/홍보센터 김현태 이사, 김영수 과장
 - 내용: 해양수산부 홍보물 확산, 협력, 자료 수집 및 제작 협조 요청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 1부

- 조업감시센터-참치연승업계 간담회 참석
 - 일시/장소 : ‘20.7.16(목), 14:00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 참석자 : 조업감시센터,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참치연승업계 / 협회 해외협력1부 대리 외 1명
 - 주요내용 : 조업수역 연안국 EEZ 관리 방안 논의 등
- 원양어선 안전펀드사업 업무 지원
- 가. 원양어선 안전펀드사업 설명회 참석
 - 일시/장소 : ‘20.7.8(수), 14:00 / 협회 부산지부 회의실
 - 참석자 : 해양수산부, 세계로선박금융, 수협은행, 업계 / 협회 해외협력1부 이사
 - 주요내용 : 원양어선 안전펀드 사업 개요 등 전반 설명 및 질의응답
- 나. 원양어선 안전펀드 2호 선박 진수식 참석
 - 일시/장소 : ‘20.7.17(금), 15:00 / (주)강남 3번 선대
 - 참석자 : 강남조선, 아그네스수산 / 협회 해외협력1부 이사 외 1명
 - 주요내용 : 원양어선 안전펀드 2호 선박(아그네스110호) 진수식 거행

○ 코로나 19 관련 지원사항

- 투발루 의회 옵서버 송환 결정 사항 안내
- 송환 허용 기간 : 7월 27일 ~ 8월 2일
- 주의사항 : 14일 간 다른 선박과 접촉 금지, 15일째부터 하선 가능
- 하선통보 : 14일 간 다른 선박과 접촉 금지 후 하선 계획 수산청에 통보

○ 국제수산기구(RFMO) 보존 조치 이행 지원

- 가. 국제수산기구별 선박(변경)등록 조치(계속)
 - 나. 2019년 WCPFC 선망 공해 조업일수 조사
 - 다. 2019년 WCPFC 해상전재 실적 제출(과학원)
 - 라. ICCAT 참다랑어 조업 허가선 목록 제출(해수부)
 - 마. 2020년 지역수산기구 어획할당량 유보량 배정 안내
- 참치어업 지원사항

가. 키리바시 입어약정(안) 전달

* (약정기간) 2020.7.7 ~ 2021.6.14

나. 호주 황새치 관리 옵션 페이지 업계 의견 전달 (과학원)

다. 나우루 수역 2021어기 구매 희망 일수 조사

라. 참치선망 조업일수 추가 구매 및 전배

○ 오징어어업 지원업무

가. 포클랜드 PSC(항만국통제검사) 관련 법령 (MSN1873) 검토 의견 전달

- 적용 불가한 사항과 대안을 대방사에 전달하여 수산청과 협의 요청

나. 상급안전신규-구명정 조종사 교육 추가 개설 요청 및 신청

- 감독관 승·하선 계약서 별첨 서류 제출(7.23 / 동북극 국경수비대)

- 96오양호 감독관 변경 승선에 따른 감독관 정보 제공 및 감독관 보험 변경 가입 안내(7.23 / 사조오양)

- 리수역 조업허가장 기재 사항 변경 신청(7.30 / 해수부, 연해주수산청)

나. 꽁치붕수망 업무추진

- 꽁치붕수망 통역관 육상근무에 따른 입역보고 및 일간보고 서식 제출 알림(7.23 / 꽁치위원회)

- 리수역 조업허가장 기재 사항 변경 신청(7.27 / 해수부, 연해주수산청)

- 러 모니터링센터 이용료 납부 및 납부내역 알림 (7.27 / CFMC)

- 리수역 조업허가장 기재 사항 변경 전문 발급 알림(7.28 / 동원해사랑, 예람교역, 창진교역)

○ '20년도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 업무추진

- 가. '20년도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7.10 / 해수부)

- 아그네스수산 및 정일산업의 '20년도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나. '20년도 해외어장 자원조사사업 1차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 신청알림(7.20 / 아그네스수산, 정일산업)

- 다. 1차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처리(7.30 / e나라도움)

- 2020년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사업 추진실적 제출 준비 요청(7.23 / 부산시)

- 2020년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사업 보고시 당 해연도 추진실적 준비 및 제출 요청

○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업무추진

- 어업허가 갱신에 따른 조업선 정보 갱신처리 (7.6 / NPFC)

해외협력 2부

가. 북양트롤 및 대구저연승 업무추진

- 리수역 조업선 입어료 송금 알림(7.27 / 주러 한국대사관)

- 2020년도 NPFC 콩치 어획할당량 정정 배정요청 (7.14 / 해수부)
- 2020년도 NPFC 콩치 어획할당량 선사간 전배 승인 알림(7.16 / 콩치위원장)
- 41해구 공해 이빨고기 연도별 생산량 자료제출 (7.10 / 수과원)
 - 41해구 구역내 선사선박별 이빨고기 생산량 자료 제출
- 남인도양수산협정(SIOFA) 협약구역 생산량 제출 (7.29/ 수과원)
 - 2000~'13년도 SIOFA 협약구역내 어획량 제출

부산지부

- 공인차량계량소 업무추진
 - 총 110개사 802건('20.7.1-7.30)
- 원양어선 입출항현황 조사 보고(부산항만청)
 - 입항 : 2개사 2척(참치연승 1척, 채낚기 1척)
 - 출항 : 7개사 8척(참치선망 1척, 참치연승 5척, 저연승 1척, 봉수망 1척)
- 부산권 냉동창고 근로자 산재보험관리기구 및 복지위원회(연금+건강보험) 이사회 참석
 - 일시/장소 : '20.7.8, 11:00-12:30/원양프라자 3층, 4층
 - 참석자 : 냉동창고 화주 및 노조 등 11명(부산지부장)
 - 내용 : (산재) '20.6월 산재보험 대상자 확정 신고 (복지) '20.6월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확정 신고
- 각종 확인 업무
 - 원양어업용선수품 무환반출 확인업무
 - 원양어획물 양륙신고 확인업무
 - 수출확인업무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지원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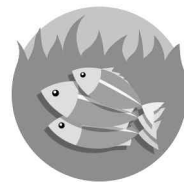
- WCPFC 수석대표 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0.7.15/ 협력센터 회의실(화상회의)
 - 참석자: 해수부 우동식 국제원양정책관, 장민주 주무관, 나일강 전문관, 협력센터 원태훈 전문관
 - 주요내용: 2020년 연례회의 및 하부 위원회 화상회의 진행방식 논의
- 해양수산협상전문가 워크숍 참석
 - 일시/장소 : '20.7.3, 13:30 / 조치원 SB프라자
 - 참석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사 안전협력센터, KIOST, KML, 해양환경공단, 협력센터 권현욱 센터장, 이혜나, 양재걸, 원태훈 전문관
 - 주요내용: 해양수산자원 관련 국제기구별 논의 동향 및 진행상황 공유를 통한 협상전략 개발
- 초청교육
 - 일시/장소 : '20.7.22/ 협력센터 회의실
 - 참석자: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32호 선장 하봉수 사무관, 협력센터 직원
 - 주요내용: 주요 어구어법, 원양 IUU 사례 및 대응
- 세계해사대학 제안서 번역
 - 'IUU 어업의 근절 및 국제수단 이행 진전을 위한 상호 역량강화 및 개발 프로그램(ICAP-FISH)'
- RFMO 보존관리조치 번역
 -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발간
 -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ICCAT) 번역
- 일본 해양수산 주요 이슈 분석 및 조사
 - 해양병출안 관련 동향 자료 송부(해양환경정책과)
 - 독도, 조어도, 북방영토, 무인도, 해양법 관련 동향 자료 송부(해양영토과)

- 일본 해수욕장 코로나19 대책 현황 조사(국제협력 총괄과)
- 일본 양식업 성장 산업화 종합 전략(7월) 정리
- 2019년 FAO 연간 통계보고서 관련 한국 수산 동향 작성
- 한국의 연간 어획량 및 양식량 세계 순위 파악
- FAO 수산위원회 토론 발언문 작성
- 한국-FAO 세계수산대학을 통한 IUU 어업의 근절 및 개도국 수산업 발전

<해외진출지원팀>

-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운영
 - '20년 상반기 업데이트 대상 국가(캄보디아, 사모아, 호주, 네덜란드, 덴마크) 업데이트
- 명예해양수산물 제도 운영
- 가. 명예해양수산물 보고서 등록 7건(OFIS)
- 나. 명예해양수산물 추천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20.7.16/ 원양협회
 - 참석자: 해양수산부, 센터, 원협, 관련업계
 - 내용: 임기만료 수산물 재위촉 심의의결, 상반기 활동 평가
- 연안 개도국 수산인프라지원사업 관련 업무추진
- 가. 2020년 투발루 소규모 수산인프라 지원물품 가격조사 및 NAFICOT 어시장 보수작업 원가계산 용역 완료(7.7)
- 나. '20년 투발루 ODA사업(수산인프라 물품 지원 및 어시장 보수) 용역 공고 준비(7.13~30)
 - 공고서, 물품 상세규격서, 과업지시서 등 작성
 - 코로나-19 사태의 악화로 인해, 전문가 파견 등에 관한 사항을 투발루측과 협의 중
- 다. 키리바시 2020년 어시장 건설 사업 협의서(안) 작성(7.20)
 - 사업 추진에 대한 양측 기관의 근거 마련을 위해 작성

- 사업명, 기간, 예산, 양측 담당자, 사업지 등을 포함하여 작성 → 키리바시에 7.20일에 전달함
- 원양산업 실태조사 관련 업무 추진
 - 용역 지원업체 제안서 평가(서면, 7.9~15)
 - (사)해양수산물과학기술연구조합과 용역 계약 (7.21)
- 2020년 해외수산물투자협회의회 운영규정 개정 보고(7.30, 해수부, 회원사)
- 해외수산물시설투자(용자) 사업 관련 업무추진
 - 해외수산물투자 용자사업 5차 공고(7.1)
 - 수협중앙회/수협은행 홈페이지 내 해외수산물시설투자 용자사업 홍보배너/문서 게시(7.7)
- 중국어 전문 기간제 근로자 채용
 - 합격자: 유현주, 임용예정일: 8.3(월)
- WCPFC 보존관리조치 검토 및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 일시/장소: '20.7.30/ 토즈마이스센터
 - 초청 전문가: 원양협회 신현애 이사,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김정례 다자협상팀장
 - 참석자: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국제협력총괄과, 원양협회, FMC, 국립수산물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외수산물협력센터 등 20여 명
 - 내용: · Harvest Strategy(CMM2014-06) 발표 및 질의·응답
 - WCPFC 주요 보존관리조치 종합 검토 및 협상 대응방안 논의





오징어 빵가루 튀김



❖ 이렇게 준비하세요

- 조리시간 / 20분
- 재료 : 오징어 1마리
- 소스 : 다진마늘 1작은술, 월계수잎 2장, 토마토 케첩 1/2컵, 우스타소스 1/4컵, 올리브유 2큰술, 후춧가루 조금, 생표고버섯 200g, 빨강피망, 키위(또는 옥수수)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오징어는 몸통을 갈라 내장을 빼내고 깨끗이 손질한 뒤 칼을 똑바로 세워 오징어 두께의 절반 크기로 가로 세로로 칼집을 넣어 4cm 정도의 크기로 썬다.

- ② 다리도 빨판을 떼어낸 뒤 깨끗이 씻어 칼집을 넣어 둔다.

- ③ 소개된 소스 재료들을 잘 섞은 다음 다진 마늘을 넣어 다시 한 번 저어둔다.

- ④ ③에다 칼집을 넣은 오징어 몸통과 다리를 20~30분 정도 재어둔다.

- ⑤ 불에 달군 석쇠에 식용유를 살짝 바른 다음 잘 재어둔 오징어를 굽는다. 너무 오래 구우면 질겨지므로 주의한다. 다 구운 뒤에는 후춧가루를 조금 뿌린다.

- ⑥ 피망, 생표고버섯, 옥수수 등도 버터를 발라 잘 구운 뒤 상에 낼 때 색을 잘 맞추어 담는다.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7월)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물관



김점봉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해양수산경제부 장관, 다카르 10번 부두 방문

- 해양수산경제부 장관으로 임명된 Aminata Mbengue Ndiaye는 다카르 10번 부두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만났다.
- 장관은 CONDAK 공장(Conserverie du Sénégal)을 첫 번째로 방문했다. 장관은 공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고 주된 이야기는 공장의 주 상품인 정어리와 참치에 관련된 것이었다.
- 장관은 동 공장이 Efe 자격을 잃어 버렸다는 것을 인지했다.
- 장관은 다양한 화자들의 말을 경청하였고 기술 서비스에 이 문제를 맡겨 해답을 제공하게 했다.
- 장관은 CONDAK의 리더들에게 지역 산업가들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의지에 대해 말하며 그들을 안심시켰다.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파운드, lbs)	가격 (달러/톤)	기타
황다랑어	20 lbs 상	2,400	
	7.5~2 lbs	1,350	
	4~7.5 lbs	1,250	
눈다랑어	20 lbs 상	1,300	
	7.5~2 lbs	1,300	
	4~7.5 lbs	1,250	
가다랑어	7.5 lbs 상	1,300	
	4~7.5 lbs	1,250	
	3~4 lbs	1,100	

다.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세네갈 다카르항 내 공급가	경유 490 유로 / MT	'20.7.29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물관



김종태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피지 경제 동향

- 2019년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측한 3.4%에 비해 현저히 낮은 1% 성장한 것으로 추정, 2018년 3.5%보다 현저히 낮으며 10년 중 최저치이다.
-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은 -4.3% 예상.
- 재정적자는 당초 예산안에서 전망했던 GDP의 2.7%에서 9% 수준으로 증가 전망, GDP 대비 부채비율도 당초 47.1%보다 높은 60.9%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66개 업체 파산, 관광, 소매업, 제조업이 코로나 19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으며 약 400개의 호텔과 리조트 중 약 20%만이 영업 중이다.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 (달러/톤)	기타
날개다랑어	10kg 상	3,050	로인가공용(PAFCO)

다.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TOTAL	\$784/ kl	'20.8.10



오시영 사모아 명예해양수산관



오시영
명예해양수산관

가. 조업 동향

- 사모아 및 연근해 어장인 쿡아일랜드에서 연승선 평균 어획량은 날개다랑어 0.5-1톤, 황다랑어/눈다랑어 0.2-0.3톤.

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동향

- 8월 아메리칸 사모아의 코로나19 비상상태 관련 하여 현재까지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없으며, 전일과 같이 사모아(아피아)간 항공노선은 일부개방하고 입국 시 14일간 격리 조치하고 있음
- 하와이 아메리칸사모아 항공노선은 8월 31일까지 중단됨. 그리고 모든 공·사립학교 및 교회, 모임 집회 등은 인원 제한 없이 개방, 식당 및 사업체만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 허용되고 있으며, 스타키스트 참치공장은 24시간 가동 허용됨.

다. 참치가격 동향

회사명	어종	규격(kg)	단가 (\$/MT)	기타
Star-Kist Sama Co	황다랑어	라운드	1,550	
	눈다랑어	라운드	1,350	
	가다랑어	라운드	1,350	

※ 가다랑어의 경우 선망선 가격 별도

라.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 격	조사일
Clipper; Oil	\$1.91(gallon)	'20.8.7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관



윤정환
명예해양수산관

가. 외국인선원 비자 미발급 사태로 인해 수산회사 위기

- 뉴질랜드는 선원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가인데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선원에 대한 새로운 비자 발급이 정지되어 시간이 갈수록 수산회사들이 새로운 선원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2020/2021 새끼리민테 및 청대구 조업을 위해 선원 교체가 필요한데 교체를 하지 못하는 회사들은 조업을 멈추거나 새끼리민테 및 청대구 어획 및 가공 경험이 없는 선원들을 고용해 조업해야 하는 상황이다.
- 정부 운영 격리시설은 이미 최대수용인원에 도달한 상태, 업계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입국 선원들에 대한 격리를 진행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해결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나. 어류가격 동향

어종명	사이즈	가격(달러/톤 /FOB 기준)	기타 (회사명)
SQUID	2L	2,400	Sea Jho Co.Ltd
	L	2,400	
	M	2,200	
	S	2,000	

다.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 격	조사일
Z	MGO \$528/MT (Bluff에서 공급 기준)	'20.6.30
	LMFO \$450/MT (Timaru에서 공급 기준)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물



이윤홍
명예해양수산물

가. 해적에 피랍된 한국선원 5명 무사히 석방

- 지난 6월24일 기니만의 배냉국 연안에서 참치조업 중 해적들에 의해 피랍된 Panofi Frontier 선장등 한국 선원 5명, 가나 선원 1명이 피랍 32일만에 나이지리아의 남부 지역에서 무사히 풀려났다고 외교부에서 발표했다.
- 현재 기니만 해역에서 10여개의 현지법인 원양 수산회사가 활약 중이고, 약 40여척의 원양어선 및 보조선박에 130여명의 한국 간부 선원들이 승선 조업 중이다. 아프리카 기니만은 아무리 해적이 많다고 해도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단순히 그냥 회피하여 철수할 수 없는, 원양어선 선원들에겐 절대로 필요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 국가의 해외 식량자원의 확보 면에서도 가치가 높은 얼마 남지 않은 원양어업 기지 중 한 곳이며,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원양어업현실 속에서도 해외로 나가 과감한 투자와 도전을 하고 있는 동포 수산인들을 보호 격려하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해적 척결을 위한 청해부대의 파함을 적극 검토해주시길 정부에 제언 드리는 바이다.

나. 2020년 금어기 시행 취소

- 수산양식개발부는 2020년 금어기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어민들에게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수산부와 어민들 사이의 문제를 확정할 수 없어 내린 결과이다.
- Mrs. Elizabeth 수산장관은 『유감스럽게도 금어기 관련 검토를 위해 어민협회 간부들을 만나자마자 코로나19 사태가 터져버려 더 이상 협의를 지속할 수 없는 상태이어서 금어기 설정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라고 말했다.

- 장관은 트롤선 분야는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검토 중에 있으나 『트롤선들도 선원들의 바이러스 감염 의심 때문에 지난 2개월 제대로 된 조업을 못하고 있다』 며 연이어 2021년까지 트롤선에 대한 금어기를 연기하는 의견을 실무 담당자에게 밝혔다고 말했다.
- 2020년 금어기 취소에 대해 수산업 종사자들 간에 여전히 수산자원의 감소에 대한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섞여 나고 있다.
- 금어기는 최근 국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개조의 일환으로 많은 어민들의 절박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시행되어 왔다.
- 올해는 트롤선을 제외한 소형 어선들의 금어기를 7월과 8월에 시행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 이런 결정 이후에도 많은 수산업 관련자들이 다른 의견을 표하고 있다. Centre for Coastal Management(CCM)의 이사이며, University of Cape Coast의 교수인 Pfof. Denis W. Aheto는 금어기는 국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장치로 필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kg)	가격(US\$)/톤	기타
황다랑어	10kg 상	1,200	
	10kg 하	1,000	
가다랑어	3.4kg 상	1,350	
	1.8kg 상	1,300	
	1.8kg 하	1,250	
	1.5kg 하	1,000	

바.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기타
Ghana Oil	\$510/kl MGO	'20.7.31	육상급유
SK B&T	\$440/kl MGO	'20.7.31	양상급유



이재원 인도네시아 명예해양수산관



이재원
명예해양수산관

가. 중국 원양채낚기 어선에서
인니 선원 시신 또 발견

- 지난 7월8일 경 인니 바탐섬 인근 (싱가포르 접경해역)에서 인니 해군함정, 연안경비대 경비정, 경찰 경비정 헬리콥터의 합동작전으로 인니 국가 정보원의 첩보에 따라, 향해 중이던 중국 원양채낚기 어선 Lu Huang Yuan Yu117호와 118호, 2척을 나포하였다.
- 117호에는 10명, 118호에는 11명의 인도네시아 선원이 승선 중이었고, 118호에는 인도네시아선원 시신 1구가 냉동실에서 발견되었다.
- 양 선박은 포클랜드 어장에서 조업, 인도양에서 양상전재하고 싱가포르에서 유류수급 후 어장으로 향해 중이었다. 보고에 의하면 사망 선원은 선장의 구타로 인하여 아프기 시작했으나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6월 20일 사망하였으나 외부에 알리지 않고 시신을 선박에 보관 중이었다.
- 이들 선원들도 한국의 근로자로 취업시켜준다고 모집하여, 중국어선에 승선시켰다.
- 인도네시아 외교부에 의하면, '19년에 1,095건의 선상 가해사건이 보고되었다고 한다.
- 지난 5월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외취업 선원송출 모라토리움 검토(6월 보고서) 후 후속 조치가 없었으나, 또 이 사건이 표면화되어 선원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나. 해양수산부 금지어구 8종류 사용 허용 예정

- 해수부는 어업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추진했다. 여기에는 2016년 해수부장관령 71호, 86호에 의해 금지되어 있던 8종류의 어구어법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 이 어법들은 2척식 대형선망어업, 2척식 소형선망어업, 새우트롤어업, 소형트롤어업, 자동조상기 오징어 채낚기 어업 등 8종의 어법이며, 총 톤수 200톤 이상의 어선에 대한 조업을 허가하여 단위 어업사업의 규모를 키우겠다고 함. 이는 어업분야에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것이다.
- 소형트롤어법(일명 고테구리)의 경우 지역어민의 반발로 인해, 일부지역에서만 조업 허가증을 발급, 조업을 허용해오고 있다.
- 인도네시아 선망어민 연합회장 James Then씨는 지금까지 200톤 이상 어선의 조업금지정책으로 연안어민들의 수익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대형 어선의 조업허가로 연안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대형 외국어선이 다시 활개치지 않을까 걱정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에 박태성 대사 취임

- 2년반의 임기를 마치고, 김창범 대사가 7월17일 귀국 이임하고, 7월 30일 제19대 박태성 대사가 취임했다.
- 박태성 신임대사는 행정고시(35회) 출신으로 주말레이시아 대사관 참사관, 산업부 감사관,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관, 산업통상부 무역투자 실장을 지냈다.
- 인도네시아 대사로는 첫 산업통상부 출신이다.



이호상 페루 명예해양수산물



이호상
명예해양수산물

가. 페루 남부 수역 제 1차 멸치 조업 개시

- 조업 수역은 남위 16도선부터 페루—칠레 국경선 수역까지이며 총허용어획량은 435,000톤이다.
- 조업기간은 8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또는 어획량 전량 소진 시까지로 각 선박 별로 쿼타량이 배정되어 있다.
- 어체 전장 12센치 미만. 미성어 비율은 최대 10% 까지. 타 어종 혼획은 5%까지 허용한다.
- 5월 13일 부터 7월 23일까지 페루 중·북부 수역에서의 멸치 어획량은 233만톤으로 총허용어획량 241만톤의 96.7%가 소진되었다.
- 그리고 8월 1일 부터는 위와 같이 남부수역으로 어장 이동하여 연계 조업 중이다.
- 6월 중에만 멸치 단일 어종이 1,331,000톤 어획 되어 전년대비 96% 증가했다.

나. 코로나 동향

- 코로나 비상사태, 7.30 정부 담화를 통하여 8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감염자 및 사망자는 증가 추세.
- 국내선 항공편은 7.15 부터 운항 재개되어 3.15 이후 4개월 만에 재개. 첫날 32편이 운항되었다.
- 국제선 항공편은 8월 중순 재개예상, 향후 국제선편 입국자들의 시설격리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페루 보건부에서 7월 8일 공표함. 지난 4, 5, 6 월 임시 항공편으로 입국한 사람들은 시설격리, 즉 지정호텔에서 14일간 의무적 체류 후 귀가했으나, 차후 이같은 조치가 없게 되어 선원들과 기술자 도착에 따른 부담이 없어짐
- 시설격리 대신 출발지 본국에서 발급된 코로나 무감염 증명서 제출과 함께, 발열 체크후 공항에서 선박 또는 기타 목적지로 즉시 이동 가능하다.

-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선원들은 KLM에서 운항하는 임시 항공편으로 암스테르담 경유하여 귀국하고 있다. 본 항공편은 7월 16일부터 주1회 운항 중이다. CALLAO 국제공항 대신 페루 공군 비행장을 이용하고 있다.
- 선박 입·출항은 특별규정 적용으로 상선과 어선들의 입·출항과 통상적인 항내 업무는 가능함
- 8월 3일 기준 코로나 확진자는 433,100명, 사망자는 19,811명이다.

다. 페루 생산부 장관 교체

- 7.15일 6개 부처 개각. 신임 생산부 장관 성명 JOSE ANTONIO SALARDI RODRIGUEZ. (생산부 중소기업 및 산업담당 차관 역임)

라. 페루 해군 경비정 2척 신조완료 및 진수

- 8월 3일에 SIMA 조선소 CHIMBOTE 지사에서 해군 경비정 RIO TUMBES 및 RIO LOCUMBA 호가 진수되었다.
- 해상 교통 통제, 수색 및 구조 활동, 마약 밀매 단속, 불법어업 감시 강화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마. 일본 어선 동향

- 일본 참치선박 KOTO SHIRO MARU 8호, 7월 21일 APM 부두 접안 예약.
- KAIO MARU 108. 7월 24일 접안 예약, 어획물 하역 및 선용품 컨테이너 인수와 베이트 선적 예정.
- 일본 참치선 3척(CHOKYU MARU 68, KOTO SHIRO MARU 10, KAIO MARU 108)이 7월 14 일 상가 수리를 끝내고 하가하여 페루 해군기지 부두에 접안, 출항 준비 중이다.

바.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 격	조사일
PETROPERU	\$2.33 / 갤런 MDO	'20.8.5



어장폐쇄 시작, 만타 가다랑어 어가 상승 가속화 1,400~1,600 달러에 거래, 공급 감소 원인

2020년 동부태평양 첫 어장폐쇄(veda)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에콰도르 만타항에서 가다랑어 어가는 이미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격 상승은 코로나19 조치로 인한 조업 지연에 따른 결과이다.

소식통은 냉동 가다랑어 원물이 톤당 1,400~1,600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이즈가 큰 참치는 더 높은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한 캔 가공업자는 톤당 1,400 달러에 입찰했으나 낙찰받지 못했고 물량 확보에 톤당 1,550 달러를 지불했다고 알렸다. 1,550 달러는 7월 8일에 ATUNA가 보도한 어가보다 300 달러 높은 수치이며 현재 방콕 시세보다 100 달러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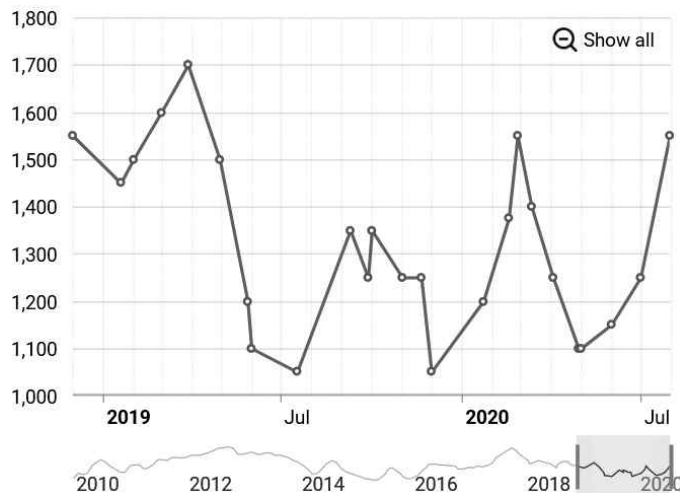
소식통들은 만타의 현재 분위기로 볼 때 빠른 시일 내에 1,800 달러 선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어가 강세의 주요 원인은 동부태평양 항구에 하역되는 원료어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런 상태에서 어

장폐쇄가 7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시된다.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에 따르면 108척의 선망선이 첫 번째 폐쇄 기간 동안 약 72일간 조업을 중단할 예정이다. 이 선박들의 최대 생산 능력을 고려하면 약 9만 100톤 정도의 공급 감소가 예상된다. 에콰도르 선박은 106척 중 45척이 첫 번째 폐쇄 기간 동안 조업을 중단할 예정으로 해당 기간 동안 3만 5천톤 정도의 공급 감소가 예상된다.

두 번째 폐쇄 기간은 올해 11월 9일부터 시작돼 2021년 1월 19일까지 이어진다. 어장폐쇄는 4등급 이상(어획물 운반 능력 182톤 이상)의 어선에만 연 1회 적용된다. 소규모 어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19 위기, 낮은 어획고, 어장폐쇄, 줄어든 조업 척수 등으로 동부태평양에서 어획되어 만타로 공급되는 참치 원물양은 몇 달 동안 계속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7월 30일자



달러 약세로 EU 참치 수입업자 혜택

아시아 가공업자 수입·판매 상쇄, 아프리카 경쟁력 대체적 하락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미국 달러는 5월말 이후 지배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세계 참치 거래는 대부분 미국 달러로 이루어진다.

현재 환율은 1 달러 0.84 EUR로 올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5월 18일 0.92 유로보다 약 9% 낮은 수치이다.

달러 약세의 첫 징후는 경미했지만 7월초부터 달러 가치가 빠르게 하락했고 몇몇 경제 전문가에 따르면 조만간 회복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한다. 그들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럽 가공업자들과 소매 업체들은 남아메리카 또는 아시아에서 참치 구매 시 보다 적은 유로를 사용하므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월 중순에 유로화 사용 국가들은 48개 들이 참치캔 한 박스를 수입하는데 CFR 기준으로 약 40 달러, 37.6 유로를 지불했어야 했다. 현재 동일한 상품의 가격은 3.6 유로로 9.5% 하락했다. 캔 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현재 0.71 유로로 이전 0.78 유로에 비해 0.7 유로 하락했다.

EU는 올해 1분기에 13만 8,389톤의 참치캔을 수입했다. 평균 CFR 가격은 4,269 유로였다. 현재 달러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구매 비용이 크게 감소하였고 독일과 같은 주요 시장의 소매가격에도 동하락이 조만간 반영될 수 있다.

대만, 필리핀, 중국과 같은 주요 참치 무역 국가들은 달러 가치 하락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다. 이들 국가는 원재료 구매 가격이 하락했지만 판매 역시 달러로 이루어져 이점이 상쇄되었다.

현재 환율은 달러로 거래하는 EU 국가들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유로화로 거래하는 세이셸, 모리셔스, 가나와 같이 아프리카에 기반을 둔 수출업자들의 참치 제품들은 경쟁력이 낮아졌다.

금융 전문가들이 말하는 미국 달러 가치의 전환 요인은 미국의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시위와 사회적 혼란이다. 같은 시기에 유럽중앙은행은 경기부양 패키지를 확대하여 유로화 가치 상승을 자극시켰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의 경제적 영향과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도 이러한 현상을 부추겼다.

6월 중순, 임박한 하락 신호가 있었다. 저명한 미국 경제학자 Stephen Roach는 달러 약세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글로벌 환경 변화와 함께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는 달러 가치 폭락을 불러올 것이다』고 CNBC에 말했다.

골드만삭스의 외환 전략 공동 총괄자 Kamakshya Trivedi는 블룸버그에 환율 변동 속도가 매우 빨랐다고 말했다. 달러 가치는 유럽 경제가 특별히 강화되지 않았지만 미국 경제 지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다년간 강세에서 약세로 돌아섰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상품시장을 제외한 전 세계 수출의 약 23%가 달러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8월 5일자





FAD 금지, 방콕 가다랑어 어가 상승 견인 1,450 달러 수준, 더 오를 듯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관한 구역에서 FAD 금지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지 4주가 지난 현재 방콕 가다랑어 어가가 크게 상승했다. 금지가 시작되고 상승 징후가 나타난 지 며칠 동안 상승 추세가 매우 완만했지만 현재 가다랑어(1.8kg 이상) 어가는 매우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Atuna는 7월 9일 당시 방콕 가다랑어 어가가 톤당 1,250 달러 선으로 6월 대부분의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이전 가격에 비해 4%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그 후 16% 상승해 현재 1,450

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가격 추세는 작년 동 기간의 흐름과 비슷하다. 작년에는 7월 초 1,000 달러에서 8월 초 1,150 달러로 15% 상승한바 있다.

소식통은 1,500 달러에 점점 더 근접하게 체결되고 있으며 다음 주에 어가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7월 29일자

올해 EU, 베트남산 참치캔 무관세 물량 4,792톤 배정 8월 1일부터 FTA 발효, 내년부터는 연간 11,500톤

베트남은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 체결로 한 해에 베트남 산 참치캔 1만 1,500톤을 EU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올해는 협정이 8월 1일부터 발효해 남은 5개월 동안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이 4,792톤으로 배정됐다. 4,792톤은 20피트 컨테이너 290개에 해당된다.

베트남수산물수출생산협회(VASEP)에 따르면 베트남의 올해 상반기 참치캔 및 참치 파우치 유

럽 수출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폐쇄조치로 감소했다.

필리핀과 에콰도르와 같은 국가들의 참치 제품 생산자들은 EU에 무관세 적용을 받고 있어 베트남 생산자들은 EU 시장에서 이들과 경쟁이 어려웠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8월 5일자



완전 양식 참다랑어 조기 채란에 성공 日 수연구소기구 세계 최초, 성장 및 生殘率 향상

일본 수산 연구·교육기구는 7월 31일 6~7월에 한정되어 있던 완전 양식 참다랑어의 산란시기를 매우 이른 시기인 3월로 앞당기는 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 기구는 천연 종묘와 동등한 정도의 성장과 생존율을 예상해 참다랑어 인공 종묘의 생산성이 향상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참다랑어 양식은 일본 근해에서 어획된 천연 종묘에 크게 의존한다. 이 때문에 완전 양식 기술에 의한 인공 종묘의 대량 생산에 거는 기대가 컸다. 지금까지 인공 종묘 생산(자연 채란)은 양식 가두리에서 참다랑어가 산란하는 6, 7월경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양식을 시작하는 여름에서 가을의 인공 종묘 크기가 천연 종묘에 비해 작고, 수온이 내려가는 겨울철의 생존율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었다.

실험에서는 지난해 5월에 완전 양식 참다랑어 2

세어 약 70 마리를 친어용 육상 수조에 넣고 친어용 대형 육상 수조에서 사육 환경을 제어, 기존보다 2개월 앞당긴 조건으로 육성했다. 산란 1~2개월 전부터 수컷이 암컷의 뒤를 쫓는 追尾 행동이 3월 초순부터 활발해져 3월 9 일에는 약 10만 마리의 산란이 있었다. 그 후 거의 매일 산란이 있고 많은 날은 1,600만 마리, 3월에만 7,000만 마리 이상의 알을 얻는 등 3월 채란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이 연구 기구는 앞으로 조기 란의 질을 상세하게 검증하고 계획적인 채란을 위한 과학적 지식을 축적해 나갈 예정이다. 조기 란에서 생산한 인공 종묘의 양식 적합성을 나타내기 위해 양식 업체의 협력을 얻어 실제 양식 해역에서의 사육 실험 등을 실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8월 3일자

참다랑어로 세계 최초 MSC 취득

宮城·白福 본점의 第一昭福丸

연승 어업을 영위하는 白福 본점(미야기현 케센 누마시)의 원양어선 第一昭福丸이 해양관리 협의회(MSC) 인증 심사를 받아 참다랑어 어업 인증 규격을 충족해 이 인증을 획득할 전망이다. 정식으로 취득하면 참다랑어로는 세계 최초라고 한다.

第一昭福丸은 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7척의 원양어선 중 1척으로 2012~2018년에 약 150kg의 대서양 참다랑어를 연간 평균 292마리 잡고 있다. 어획한 참치는 모두 일련번호를 기입한 전자 태그를 장착해 선상에서 급속 냉동 후 최고 품질의 생선회 용으로 일본 국내에 출시된다.

심사는 2018년 8월부터 시작, 제3자 심사 기관이 자원 평가 및 생물학 데이터, 어획 데이터 등을 검토한다.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은 참다랑어의 성숙율(成熟率)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지만 개정된 행동 계획에 반영되어 있다고 독립재정인이 판정했다.

향후 최종 보고서에 수정을 가해 이 회사의 어업이 정식으로 인증을 취득하게 된다.

이 인증을 받은 대서양 참다랑어는 일본과 미국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8월 3일자

외국인 소유 솔로몬 국적 선망선 어획량 최대 작년 선망선 11척 64,277톤 어획

솔로몬 국적 선망선의 2019년 어획량은 2018년 대비 21% 증가했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자료에 따르면 솔로몬 국적 선망선 어획량은 총 6만 4,277톤으로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총 생산량 6만 4,277톤 중 가다랑어가 4만 5,584톤으로 71%를 차지했으며 전년과 대비해서는 35% 증가했다. 황다랑어 비중은 27%이며 2017년 이후 일정한 어획량을 유지했다. 과거 가다랑어와 황다랑어의 조업 비율은 각 50%였고 눈다랑어는 항상 비중이 낮았다.

솔로몬 EEZ는 어획량이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이며 면적이 158만 9,477km²로 태평양에서 2번째로 넓다. 태평양수산위원회(FFA)에 따르면 동 지역의 어획량은 17만 9,200톤이다. 하지만 이는 모든

종류의 업종, 선박의 어획량을 합친 것이다.

솔로몬 국적 선망선 어획량은 2015년 2만 8,800톤에서 2019년 6만 4,277톤으로 증가했다. 대형 선망선을 비롯해 선박 크기도 커졌으며 척수도 증가한 것이 생산량 증가의 원인이다.

솔로몬 국적 선망선은 2015년 8척에서 2019년 11척으로 증가했다. 2019년 생산량이 2018년 대비 11,289톤 증가했는데 그 원인은 1001-1500톤 규모의 선망선 한 척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솔로몬 Star News 보도에 따르면 수산해양자원부(MFMR)는 최근 과거 5년(2014~2018) 동안 매년 솔로몬에서 조업해온 선박을 대상으로 180~235건의 허가를 승인했다. 허가 선박은 92%가 외국인 소유이고 8%만 솔로몬인 소유이다.

WCPFC Key Species	2015		2016		2017		2018		2019	
	MT	%	MT	%	MT	%	MT	%	MT	%
ALBACORE	0	0%	0	0%	0	0%	0	0%	2	0%
BIGEYE TUNA	328	1%	792	1%	383	1%	695	1%	452	1%
PACIFIC BLUEFIN TUNA	0	0%	0	0%	0	0%	0	0%	0	0%
SKIPJACK TUNA	12,776	44%	31,284	56%	26,487	58%	33,651	64%	45,584	71%
YELLOWFIN TUNA	15,689	54%	23,993	43%	18,842	41%	18,531	35%	18,130	28%
BLACK MARLIN	2	0%	12	0%	3	0%	3	0%	4	0%
BLUE MARLIN	5	0%	6	0%	0	0%	12	0%	11	0%
STRIPED MARLIN	0	0%	1	0%	2	0%	1	0%	1	0%
SWORDFISH	0	0%	12	0%	0	0%	2	0%	0	0%
BLUE SHARK	0	0%	1	0%	0	0%	0	0%	0	0%
SILKY SHARK	0	0%	128	0%	0	0%	68	0%	93	0%
HAMMERHEAD SHARKS	0	0%	0	0%	0	0%	0	0%	0	0%
MAKO SHARKS	0	0%	0	0%	0	0%	0	0%	0	0%
OCEANIC WHITETIP SHARK FORBEEABLE / SALMON SHARK	0	0%	0	0%	0	0%	0	0%	0	0%
WHALE SHARK	0	0%	0	0%	0	0%	0	0%	0	0%
THRESHER SHARKS	0	0%	0	0%	0	0%	0	0%	0	0%
Total	28,800		56,229		45,717		52,963		64,277	

기사 출처: Atuna, 2020년 7월 24일



코로나19, 세계 참치 어획량에 어느 정도 영향?

영향 제한적, 일부 지역 일시적 공급 부족

지난 2개월 동안 전 세계 참치 산업은 인도양 및 동부태평양 선망선 승선 선원의 코로나19 감염 소식 등으로 매우 불안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문제는 여태껏, 그리고 앞으로 선망선의 조업 중단 또는 조업일수 감소가 원물 공급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가이다.

<인도양 어선 정박>

인도양에서 조업하는 스페인 선망선은 교대 선원 7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며 검사를 위해 50% 이상(20척 이상)이 조업을 중단해야 했다. 인도양에서 조업하는 스페인 선사는 Echebaster, Albacora, Atunsa, Pevasa, Impesca이다.

스페인 참치생산자협회(OPAGAC)는 지난 17일에 7척 중 4척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조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선박은 여전히 빅토리아항에 정박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인도양 공급 라인을 통해 유입된 냉동 참치 원물은 평소보다 5~7만 톤 정도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동부태평양 조업 지박>

에콰도르와 멕시코는 두 국가가 합쳐서 동부태평양에서 137척의 선망선을 운영하고 있다. 에콰도르

의 한 소식통은 에콰도르 선망선 88척 중 50~60%는 의무 검역 등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인해 어느 시점에 조업을 중단해야 했다고 한다. 소규모 어선이 특히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

여러 선사들과 나눈 대화를 기반으로 Atuna는 라틴아메리카 캔 가공업자들에게 올해 상반기에 공급된 가다랑어와 황다랑어 물량이 평상시보다 5만 5,000톤 ~ 7만 5,000톤, 20% 정도 감소했다고 추정했다. 만타, 과야킬, Posorja에 위치한 캔 가공업자들 대부분이 감소를 체감했다.

<중서부태평양 공급 계속>

중서부태평양에서 운영하는 참치선망선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하지만 중서부태평양에서 올해 상반기 동안 총 생산량은 10만~15만톤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감소분은 캔 가공 분야로 공급되는 전 세계 참치 생산량의 5% 미만이다.

세이셸, 모리셔스, 에콰도르와 같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일시적인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7월 17일자

태평양 횡감용 참치 산업, 식품 서비스 폐쇄로 고통 FFA, 호주·뉴질랜드 대안으로 고려

태평양수산위원회 투자 매니저인 Tony Sullivan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일본 및 태평양 지역 시장에서 횡감용 참치 수요가 급락했다』고 PacNews에 말했다.

아울러 그는 수요 급락 외에도 운임이 기존보다 250% 증가하여 신선·냉장 참치의 운송이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FFA는 횡감용 참치 산업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Sullivan은 『뉴질랜드와 호주 시장에 집중하면서 태평양 이외의 다른 잠재 소비자를 찾는 것이 한 가지 대안이다』며 『이미 호주에 시형적으로 운송한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7월 17일자



스페인 중서부태평양 조업 참치, 만타 유입 감소

2015년 33,243톤에서 2019년 10,242톤으로 감소

스페인 국적선의 중서부태평양 조업 선박 및 어획량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동선박이 만타에 하역하는 양도 줄어들었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자료에 따르면 스페인 선박의 어획량은 2015년 3만 3,243톤에서 1만 242톤으로 69% 감소했다. 2016년에 가장 많이 감소했고 2017년에 일정 부분 회복한 후 다시 하락했다. 동 선박들은 평균적으로 가다랑어를 가장 많이 어획(65~80%)했고 그 다음이 황다랑어, 눈다랑어 순이었다. 어획량이 감소한 첫 번째 이유는 척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선망선 조업 척수는 2015년 4척에서 2016년에 2척으로 감소했고 그 이후 2척을 유지했다. 2척의 선망선은 1,500톤 이상으로 6~7항차를 나가 1만톤 이상을 어획했다.

WCPFC 선박 등록 자료에 따르면 중서부태평양 수역에 등록된 스페인 어선은 22척이지만 태평양

도서국 EEZ에서 조업하기 위해서는 참치 조업 허가(조업일수)의 구매가 필요해 모든 선박이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스페인 어선의 대부분은 대개 공해상에서 조업이 이루어지는 동부태평양에서 운영되고 있다.

스페인 선망선들은 동부태평양 어장페쇄(veda) 기간 동안, 약 2개월을 중서부태평양에서 조업한다. 동 선박들은 대부분이 키리바시와 같이 참치 자원이 풍부하고 중서부태평양과 동부태평양의 경계선상에 있는 도서국 EEZ 및 공해에서 조업 후 만타에 하역한다. 동 선박 소유자들은 Manta의 캔 가공업자들이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원물에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만타에서 참치를 판매하는 것을 선호한다. EU 선박에서 잡은 어획물을 이용한 가공품은 EU 시장에 면세로 수출 가능하다.

WCPFC Key Species	2015		2016		2017		2018		2019	
	MT	%	MT	%	MT	%	MT	%	MT	%
ALBACORE	0	0%	0	0%	0	0%	0	0%	0	0%
BIGEYE TUNA	3,156	9%	1,791	21%	3,153	27%	1,561	15%	795	8%
PACIFIC BLUEFIN TUNA	0	0%	0	0%	0	0%	0	0%	0	0%
SKIPJACK TUNA	25,277	76%	6,328	73%	7,835	67%	7,872	75%	8,137	79%
YELLOWFIN TUNA	4,775	14%	580	7%	735	6%	994	10%	1,309	13%
BLACK MARLIN	3	0%	0	0%	0	0%	0	0%	0	0%
BLUE MARLIN	9	0%	0	0%	0	0%	0	0%	0	0%
STRIPED MARLIN	0	0%	0	0%	0	0%	0	0%	0	0%
SWORDFISH	0	0%	0	0%	0	0%	0	0%	0	0%
BLUE SHARK	0	0%	0	0%	0	0%	0	0%	0	0%
SILKY SHARK	23	0%	1	0%	1	0%	1	0%	1	0%
HAMMERHEAD SHARKS	0	0%	0	0%	0	0%	0	0%	0	0%
MAKO SHARKS	0	0%	0	0%	0	0%	0	0%	0	0%
OCEANIC WHITETIP SHARK	0	0%	0	0%	0	0%	0	0%	0	0%
PORBEABLE / SALMON SHARK	0	0%	0	0%	0	0%	0	0%	0	0%
WHALE SHARK	0	0%	0	0%	0	0%	0	0%	0	0%
THRESHER SHARKS	0	0%	0	0%	0	0%	0	0%	0	0%
Total	33,243		8,700		11,724		10,428		10,242	

기사 출처: Atuna, 2020년 7월 21일자



일본 신선 살오징어 어장 가나자와에서 북상 7월 어획량 35% 감소 2,200톤(일본 어업정보 서비스센터)

일본 신선 살오징어 어장이 점차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일본 어업정보 서비스센터에 따르면 7월 전국 주요 어항의 어획량은 전년 동월 대비 35.1% 감소한 2,175.4톤이었다.

이시카와현 앞바다 부근에 체류하고 있던 것으로 보였던 살오징어는 6월 중순 이후부터 점차 북상했다고 센터 측은 밝혔다. 현재 연안에서 니가타사도 섬 주변부터 야마가타 현 앞바다, 샤고탄 반도 등에서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센터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6월 가나자와에서 전년 동월의 2배 가까운 2,901.8톤을 어획, 전국 어획량의 64%를 차지했다. 7월에는 가나자와의 어획량이

947.3톤으로 떨어져 전국 어획량도 함께 감소했다.

가나자와에서 어획이 이뤄진 이유에 대해 어업정보 서비스센터는 『올해는 쓰시마 난류 남쪽에 냉수역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오징어의 대화퇴로의 회유가 저해되어 이시카와현 앞바다 부근에 체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요 어획 항구는 아오모리현 하치노헤다. 1~7일의 어획량은 540톤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한다. 향후에 대해 센터 측은 『홋카이도, 아오모리, 니가타에서의 어획량이 증가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8월 11일자

日 신선 살오징어 어획량 40% 감소한 1,400톤 1~22일 어군 근해 북상, 가나자와 어획 반감

일본 신선 살오징어 어획이 침체되었다.

일본 어업정보서비스센터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64.5% 증가한 3,951톤을 어획한 6월 이후 일대 전환이 일어나 7월 1~22일 전국 주요 항구의 어획량은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한 1,411톤이 되었다.

6월 주요 어획 항구였던 가나자와의 7월 1~21일 어획량은 693톤으로 49% 감소했다. 이 센터는 동해 측 어군이 소형 오징어채낚이 어선이 가지 않는 근해를 북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7월 1~22일 일본 전국 주요 항구의 평균 위판가는 전월 대비 20% 오른 kg 당 542 엔 거래되고 있다.

가나자와의 어획량이 떨어진 반면, 니가타와 야마가타는 향상되고 있다. 7월의 니가타와 야마가타현 사카타의 하루 어획량은 6월의 하루 평균 수량을 웃도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1~21일 니가타가 4.8배인 158톤, 야마가타현 사카타는 20배인 119톤을 어획했다.

21일 현재 카나자와와 니가타는 5kg 상자 25마리 들어가, 사카타는 25~30마리 들어가 동해 어군은 홋카이도 오타루에서 왓카나이까지 확산되면서 왓카나이에서는 16일부터 조업이 시작됐다. 태평양은 아오모리현 시모키타 반도의 오징어낚시 조업 어획량이 집계되고 있다고 한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7월 27일자



일본 이시카와 중심으로 살오징어 어획 계속

日 신선 살오징어 7월 시황...수량 줄겠지만 8월도 기대

5월부터 어획 주력이 되고 있는 이시카와 앞바다의 신선 살오징어 조업은 7월말이 되어서도 전국 어획량을 견인하고 있다. 종전에는 동해를 북상하는 초기 5~6월 경에 본격화해 그후 기세가 약해지는 어장이었으나 몇년 전부터 7월에도 호조세인 어획량을 보였으며 올해도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2019년 8월까지 월간 100톤 이상 어획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올 8월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고 한다.

일본 어업정보 서비스센터(JAFIC)의에 따르면 7월 28일 현재 일본 전국 산지 시장의 위판량은 152톤. 6월 위판량 4,435톤(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에 비하면 미흡한 편이다. 가격도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수량 감소에 따라 kg 당 548엔(전년 동월 대비 5% 상승)으로 전년 수준으로 안정되었다. 다만 주력은 계속 이시카와현 가나자와항이 692톤

으로 한 달 어획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량이 집계되고 있는 니이가타항(183톤)과 야마가타현 사카타항(144톤)을 제치고 호조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도요스 시장에서도 5월 둘째 주부터는 이시카와를 중심으로 한 공급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7월 셋째 주(17~23일)의 하루 평균 상장 수량은 32톤(7% 증가)으로 호조를 보였으며 도매시장 관계자는 『이대로 8월까지 이시카와의 어획은 계속 되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시카와라는 특정 지역의 어획이 호조인 이유에 대해 JAFIC(일본 어업정보 서비스센터)는 『쓰시마 난류가 북상하고 있다는 점과 쓰시마 난류의 남측으로 냉수역이 분포한 점 등으로 대화퇴로의 회유가 방해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기사 출처: 일간 수산경제신문 2020년 7월 30일자

올해 아르헨티나 오징어 어획량 최고 수준

7월 15일 기준 164,451톤

아르헨티나 국립수산개발연구소(INIDEP)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일렉스 오징어 어획량은 7월 15일 기준으로 16만 4,451톤을 기록했다고 한다. 아직까지 조업구역에서 30척 이상의 채낚기 어선이 조업하고 있다.

지난 주 국립수산개발연구소는 Buenos Aires-Nor-Patagonic sub-stock(SBNP)의 이번 시즌 어획량이 이미 기록적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조업 시즌을 요약한 기술 보고서 14에 따르면 28주까지 Buenos Aires-Nor-Patagonic sub-stock(SBNP) 누적 생산량은 7만 5,606톤으로 지

난 20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전에 가장 높은 생산량을 기록했던 2005년 5만 7,108톤보다 이미 32%나 많이 잡았다. 69척의 선박이 조업해 일일 평균 18.85톤을 양륙했다.

South Patagonic stock 생산량은 6만 9,249톤이었다. 이 중 트롤로 잡은 양은 2만톤 가까이 된다. 아울러 북쪽 지역에서는 1만 2,615톤이 어획되었다. 하지만 며칠 밤 동안 악천후가 이어진 후 7월 20일에는 어획량이 '0'으로 조업 시즌의 끝이 다가오는 것으로 보인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0년 7월 22일자



동해 오징어 ‘급감’ 알고보니...중국 유령 선단이 16만톤 ‘씩쓸이’

국제 연구팀, 위성사진 분석해 증거 확보

동해의 오징어 어획량이 급격하게 줄어든 원인을 궁극해 한 과학자들이 기계학습 기술을 이용한 위성 사진 분석 등으로 중국의 불법 어획이 핵심 원인이라는 증거를 찾아냈다. 700~900척에 달하는 중국의 ‘유령 선단’이 2017년부터 2년 동안 몰래 잡아 들인 오징어가 16만톤에 달한다는 걸 확인한 것이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한해 어획량 합계와 맞먹는 것이며 금액으로는 약 4억4천만달러(약 5300억원) 어치다.

2015년에 설립된 국제 비영리단체 ‘글로벌 어업 감시’(GFW)는 이런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했다고 22일(현지시각) 밝혔다.

과학자들의 오징어 감소 원인 규명 작업은 2018년 초 ‘글로벌 어업 감시’의 박재운 선임 데이터 분석가가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당시 어업자원 연구실장을 만나면서 본격 시작됐다. 당시까지는 한국과 일본의 남획이나 기후 변화가 오징어 감소의 주 원인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2003년과 비교해 80% 가량 준 한국과 일본의 어획량을 이런 요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두 사람은 판단했다.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중국 어선들의 자료를 파악해야 한다고 보고 공동 작업에 들어갔다고 박재운 분석가는 ‘글로벌 어업 감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글에서 설명했다.

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미국의 공동 연구팀은 기계학습 기술, 선명한 위성 사진, 야간 빛 감지 광학 기술 등을 결합해 동해 바다에서 중국 어선들의 활동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위성 사진 분석을 통

해 북한이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설정한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외국 어선이 2017년 900척, 2018년 700척에 이른다는 걸 확인했다.

이 중 대부분은 자동 식별 장치나 국적 표시가 없는 배들이다. 연구팀은 식별 장치가 있는 일부 어선의 정보를 한국 해양경찰 자료와 비교 분석해, 어선들이 중국 국적이라는 걸 밝혀냈다. 동해에서 조업하는 어선 규모는 중국 전체 원양어선단의 3분의 1 수준이다.

중국 어선들의 조업 방식도 충격적이다. 저인망 선단이 그물을 서로 연결한 뒤 바닷물을 퍼올리는 방식으로 오징어를 씹쓸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 연구자인 데이비드 크루즈마는 “마치 단채로 풀을 깎는 것처럼 보였다”고 묘사했다.

연구팀은 중국 어선을 추적하다가 뜻밖의 사실도 알아냈다. 대규모 선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 어부들이 길이 20m 미만의 작은 나뭇배를 타고 러시아 주변 해역에서 조업한다는 걸 위성 사진 등으로 확인한 것이다. 연구팀은 이렇게 조업하는 북한 어선이 2018년 한해에만 3천척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한 어선들은 장비가 허술해 일본이나 러시아 해안에서 표류하는 일도 잦다고 연구팀은 덧붙였다.

‘글로벌 어업 감시’는 주변국 어부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끼치면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불법 어업을 막기 위한 국제 협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기사 출처: 한겨레, 2020년 7월 23일자, 일간 미나토신문 7월 27일자



일본 선동 빨강오징어, 하치노헤항에서 전년比 20% 하락 출발

하절기 판매 9일부터 시작 동해 살오징어 好漁로 이동도 예상

일본 아오모리현 하치노헤 항구에서 5월부터 북서 태평양에서 조업하고 있던 선동(船凍) 빨강오징어 하절기 어획량 판매가 7월 9일부터 시작되었다.

첫 어획량은 6월 중순에 기관 고장으로 임시 귀항한 중형 어선이 어획한 2,571 상자(1상자당 평균 10.5kg)였다.

7월 9일에 예정대로 귀항한 중형 어선이 1만 382 상자를 잡아 이날 총 1만 2,953 상자를 판매했다. 16/20 사이즈의 크보누키(다리, 내장, 귀를 전부 제거한 형태)가 10kg 4000 엔 전후로 전년 대비 20% 낮게 시작했다. 7월 13일 현재 북서 태평양에서는 22척의 일본 중형 어선이 조업 중이다. 이미 4척이 귀항, 7척이 조업을 끝내고 하치노헤항으로 향하고

있어 순차적으로 어획물을 판매하게 된다. 7월 13일은 6,834 상자, 14일에는 2척이 각각 1만 181 상자, 1만 26 상자를 잡아 14일까지 총 어획량은 3만 9,994 상자가 되었다. 13, 14일의 판매는 모두 크보누키로 고가가 상자당 3,800~3,900 엔으로 4,000 엔 대를 밀도는 시세를 보였다.

예상보다 저가였는데다가 동해의 살오징어 조업이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빨강오징어 조업은 1회로 끝내고 동해로 출항을 검토하는 어선도 있다.

동해 무사시퇴에서는 중형 어선 15척이 조업해 각각 한 달에 3,500 상자, 많게는 5,000 상자를 어획하는 등 비교적 좋은 어황을 보이고 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7월 21일자

日 가나자와항 신선 살오징어 계속 어획, 하루 80톤도 잡아 6월 90% 증가, 7월 더 강세

일본 가나자와시 가나자와항에서 연안 소형 오징어채낚기예 의한 신선 살오징어 어획량이 7월 중순 들어 일단 시들해졌지만 하순이 되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7월 20일은 30톤 이상을 어획했다.

일본 어업정보 서비스센터 집계에 따르면 가나자와항 신선 살오징어 어획량은 5월이 842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 감소했었지만 6월 2,902톤으로 90% 늘었다. 가나자와항의 어획량 급증이 일본 전국 어획량을 올리고 6월 주요 항구 총 어획량은 80% 증가한 4,400톤을 넘어섰다. 1~6월 누계도 8,300톤 이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늘었다.

가나자와항의 위판량은 7월 들어서도 3~10일까지 어획량이 있었던 날은 하루 50~80톤의 강세가 이어져 16일까지 500톤을 초과했다. 7월 12

일에는 6.3톤에 그쳐 이대로 주저앉는 것으로 보였다가 다시 20~30톤의 어획을 보여왔다.

이시카와현 수산종합센터에 따르면 한때 어장이 북상했던 것으로 보였으나 다시 노토 반도 앞 바다와 니가타, 사도 연안에서 어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아오모리 쓰가루 해역 서쪽 수심 50미터에서 냉수괴(冷水塊) 출현이 강해져 오징어 어군의 북상이 저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시카와현 앞바다의 지난해 연안 소형 오징어 채낚기예 의한 신선 오징어 어획량은 5월 684톤, 6월 962톤, 7월 1,207톤이었다.

이시카와현 수산종합센터에 따르면 예년 7월에는 어군이 북상하지만 지난해는 이례적으로 5월부터 막바지 어획이 증가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7월 21일자



日 꿈치 최악 수준 흉어 예측

일본 수산청과 수연구소기구, 수량 줄고 소형화, 어장은 원격화

일본 수산청과 수산연구·교육기구가 7월 31일에 발표한 장기 어해황 예보에 따르면 올해 일본 근해에 내유하는 꿈치는 지난해에 비해 양이 적고, 신선용 1세어는 어체가 말라 있을 것 같다. 또한 어장은 일본에서 먼 동쪽으로 치우쳐 어선의 왕래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올해 일본 국내 어획량은 꿈치붕수망 보급 이후 최저였던 지난해를 더욱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일본 수연구소기구는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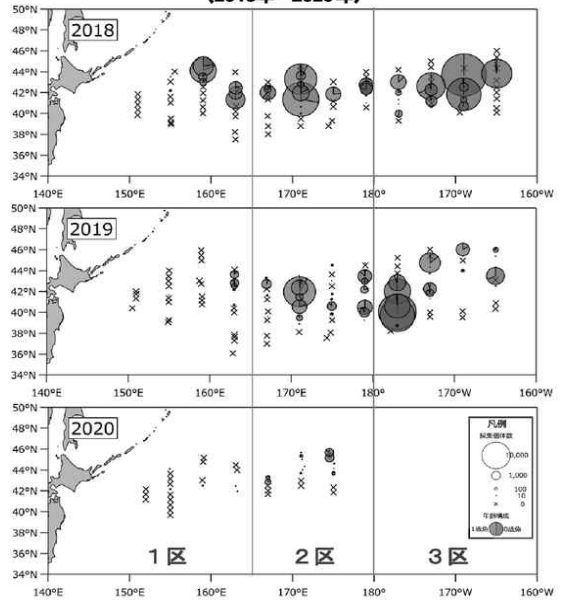
어기 전에 포획 조사는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규모가 축소되어 지난해까지의 조사 결과와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1망(網) 당 채집 마리 수가 전년까지보다 떨어지고 있다.

이 기구 담당자에 따르면 꿈치 자원이 적고, 자원 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정어리가 꿈치가 먹을 먹이를 차지해 꿈치가 북쪽으로 내몰리고 있는 점 등을 그 배경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

1세어 어체는 말랐다. 6~7월 조사의 중심 사이즈는 재작년, 작년이 100~109g이었지만 올해는 80~89g이다. 조사 후 살이 찌는 점을 감안해도 어획 시 100~110g의 개체가 중심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이 기구 관계자는 밝혔다. 6~7월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꿈치 어군은 동방(러시아 수역 측)에 치우쳐져 있어 남서 산란장을 목표로 일본 열도에 가까워지는 시기는 늦어질 전망이다. 산리쿠에 어장이 형성되는 것은 예년보다 2~3주 늦은 10월 하순 경이라고 이 기구는 밝혔다. 8월 하순의 어장은 에토로후(이투루푸) 섬 북쪽으로 분산되어 홋카이도 동쪽 근해 공해도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일본과 먼 거리에 있는 꿈치 어군은 일본 열도에 접근하기 전에 남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 일본 연안은 꿈치가 싫어하는 고수온으로 인해 어

サンマ資源量直接推定調査におけるサンマの分布状況 (2018年~2020年)



*サンマ資源量直接推定調査におけるサンマの分布状況(2018~2020年)円の面積は調査1網あたりの採集尾数を示す。●は10歳魚、◎は1歳魚の割合

장도 일본에서 먼 동쪽으로 생길 것이라는 예보다. 일본의 항구에서 어장까지의 왕래에 시간과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어획에 더 불리해 진다.

일본의 꿈치의 어획량은 1950년 대 후반의 50만 톤 전후가 피크였다. 2000~2012년과 2014년에도 20만톤 이상이였지만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 4만톤으로 꿈치붕수망 보급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었다. 이 기구 담당자는 『꿈치 자원이 줄어들었고 그 원인이 환경 요인과 어획량의 양면을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친어가 없어지면 환경이 좋아진 후에도 필요한 산란을 얻지 못해 자원이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친어를 지키기 위한 국제어업 관리를 호소하고 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7월 27일자



日 콩치 지난해 밀도는 내유, 심각한 흉어 예상 어장 근해 분산, 도우토우 연안 형성은 기대 희박

내유량은 지난해 미만, 1세어의 평균 체중은 지난해 이하다. 어장은 근해에 널리 분산, 도우토우(道東) 해안에 거의 형성되지 않는다.

일본 수산청이 7월 31 일에 공표한 콩치 장기 어해황 예보는 지난해 이상으로 심각할 전망이다. 표층 트롤 조사는 예년 2척 체제이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1척이었다. 공해 콩치 조업도 없고, 조사 해역이 제한되어 정보량이 적은 가운데 예보됐다. 6~7월에 동경 152도~175도 조사 해역 47조사 지점에서 채집된 콩치는 총 1,118 마리. 지난해(62조사 지점 1만1 마리 채집)와 단순 비교할 수 없지만 채집 수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6월 쿠시로 수산 시험장의 유망 조사에서 채집도 부진했다. 외국 어선의 같은 시기 조업도 적합한 어군을 찾지 못해 어장을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년 조사 해역은 동경 165도以西(1구), 동경 165도~동경 180도(2구), 동경 180도~서경 163도(3구)로 구분. 1구와 2구 콩치가 가을에 일본 어선 조업 해역에 내유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트롤 조사에서는 동경 167도와 175도 부근에서의 채집 이외에 군집된 어군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일본 근해로의 내유량은 『어기에 군집된 어군 내유는 전망할 수

없고, 얇은 어군을 탐색하면서 조업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성어로 식용 대상인 1세어는 동경 167도 부근에서 잡혔을 뿐이고 동측은 0세어. 1세어 비율은 지난해를 밀돌 것 같다. 게다가 조사 시에 100g 미만이 80%를 차지하여 1세어 체중은 지난해를 밀돌 것 같다.

어장은 대형선(100톤 이상)이 출어하는 8월 하순부터 9월 상순까지는 에토로후 섬 이북 해역에서 산발적으로 형성. 쿠릴 열도를 따라서 남하, 어군 내유가 지연될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해상에 어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또한 일본 근해에는 정어리, 고등어가 넓게 분포해 오야시오 해류 제1분 지점으로 콩치가 내유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된다. 제2분 지점을 경유하여 남하하면 어장은 연안 중심이 되어, 산리쿠 해역로의 어군 내유도 지체되어 10월 하순에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장관 허가 콩치붕수망 어선의 해금일은 지난해와 동일해 10톤 이상 20톤 미만 선박이 8월 10일, 20톤 이상 100톤 미만 선박이 8월 15일, 100톤 이상의 대형 선박은 8월 20일로 되어 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8월 5일자

회원사 소식 및 정보 원고 접수

회원사 여러분에게 보다 알차고 참신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회원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나 각종 원고를 접수합니다. 회원사의 경조사, 사무실이전, 신제품 생산 등 각종 소식이나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제안 등을 아래 송부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관계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자료는 적극 원양산업지에 게재하겠습니다. 우리 원양산업지를 알게 꾸미는데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 소 : 서울 서초구 논현로 83, 6층(양재동, 삼호물산빌딩)
한국원양산업협회 홍보.마케팅지원센터(우편번호 : 06775)
- 팩스 : 02-589-1630/1631/○ e-mail 송부시 : kosfa@kosfa.org



GAPP, 명태 신상품 개발, 미·영 기업과 실시 일본은 수리미 등 활용법 연구 개발

미국 알래스카주의 명태 생산자 조직인 알래스카 명태생산자협회(GAPP)는 16일 미국과 영국의 기업 3사와 파트너쉽을 맺고 시장에서의 새로운 명태 수요 발굴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테이크아웃에 대응할 수 있는 메뉴와 상품 개발 등을 진행하면서 알래스카산 명태의 영양과 지속 가능한 수산물임을 소비자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파트너로 결정된 기업은 미국의 데니즈와 고틀즈시푸드(日本水産그룹), 영국의 뉴잉글랜드시푸드 등 외식 및 수산물 제조, 판매 업체 등 3개사다.

데니즈는 테이크아웃에도 대응할 수 있게 명태를 이용한 피시 앤 칩스(생선 튀김에 감자튀김을 곁들인 요리, 영국의 대중적 패스트푸드)나 샌드위치 메뉴를 개발한다. 고틀즈는 소비자들에게 냉동 수산물인 천연 알래스카산 명태로 시도하는 새로운 레시피와 천연 알래스카산 명태의 장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 트렌드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뉴잉글랜드시푸드는 명태 신상품으로 「덴타 로인즈」라는 상품을 개발해 시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집

에서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천연 알래스카산 명태의 장점을 소개할 계획이다.

알래스카 명태생산자협회(GAPP)는 지금까지 4회에 걸쳐 파트너쉽 프로그램 모집을 실시했다. 승인된 방안에는 협찬금으로 북미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300만 달러 이상, 유럽 파트너십에는 100만 달러 가까운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명태생산자협회(GAPP) 그레이그 모리스 최고 경영책임자(CEO)는 일본 기업과의 파트너쉽에 대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 영향으로 북미 이외의 시장에서의 계획도 조금 늦춰지게 되었다. 유럽에서 파트너쉽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었던 한편 일본에서의 계획은 상세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하면서 『(일본에서는) 수리미와 명태 활용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시작하고 있다.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할 생각이다. 가장 중요한 시장인 일본의 천연 알래스카산 명태 소비 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가지고 다루겠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일간 수산경제신문 2020년 7월 22일자

일본 명태 이번 어기 쿼터 6.5만톤

일본 수산청 오호츠크해 来遊 좋아 1만 톤 증가

일본 수산청은 8월 6일 도쿄 도내에서 열린 수산 정책심의회 제102회 자원 관리 분과회에서 2020년 어기(4월~2021년 3월)의 명태 총 허용 어획량(TAC) 쿼터를 승인했다.

오호츠크해의 명태 어군이 올해 많은 동해 어장에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 동해역의 연안 저인망 쿼터를 1만톤 늘려 6만 4,900톤으로 정했다.

명태 어군은 일본과 러시아의 해역을 오가는 공유 자원이지만 『올해는 자원이 늘어난 것 같다. 일

본의 어장에서 魚影이 짙다』고 일본 수산청 자원관리부 관계자는 밝혔다. 동해 근해 저인망어업은 6월 시점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3만 7,515톤의 명태를 어획했으며, 일본 수산청은 내년 3월까지 6만 4,236톤이 어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쿼터 증가를 제안해 위원들의 승인을 받았다. 이번 쿼터 증가로 인해 일본 국내 전체의 2020년 어기 명태 쿼터는 23만 4,700톤이 되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8월 7일자



Russian Fishery, 새로운 명태 시장 공략

올해 상반기 어획량 및 제품 생산량 증가

세계 최대 흰살 생선 생산자 중 하나인 Russian Fishery Company(RFC)는 상반기 동안 어획량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폴란드와 싱가포르에도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RFC의 Viktor Litvinenko 대표이사는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기존 명태 시장과 국내 시장을 유지하면서 싱가포르로 명태 필렛, 폴란드로 H&G를 공급하여 수출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고 IntraFish에 밝혔다.

RFC의 최근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명태 필렛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고 한다. 올해 명태를 비롯한 전 어종의 상반기 어획량은 19만 1,6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했으며 전체 수산 제품 생산량은 4% 증가하여 12만 7,000톤에 달한다고 한다.

RFC는 올해 명태 쿼터 28만 2,400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약 70%를 소진했다.

RFC는 선박 현대화, 슈퍼트롤 신조, 육상 가공공장 신설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RFC는 11척의 새로운 슈퍼트롤 신조를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선박 신조의 대가로 투자 쿼터를 할당하고 있다.

신조 트롤선은 연간 6만톤 이상을 어획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현재 극동 지역에서 조업하는 보통의 러시아 선박보다 어획 능력이 2.5배 높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기반으로 하는 Admiralty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10척의 건조 비용은 총 650억 루블(7억 9,660만 유로, 9억 1,820만 달러)이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0년 7월 24일자

기후변화로 명태 어획~가공공장 거리 멀어져

냉동 수산물 수요 증가로 명태 어가는 안정적

알래스카 명태 생산자들은 B시즌을 시작한지 한 달 좀 더 지났다. 공모선은 제 시간에 양질의 제품을 가공했지만 육지에 있는 공장들은 원료 운송 문제를 겪었다. 주요 조업선 간부 선원에 따르면 북베링해에서 어획한 명태를 네델란드 항구 또는 알래스카에 위치한 공장까지 운송하는데 80~90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러한 시차가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소개한 베링해 관련 과학 보고서에 따르면 동 지역 해양 환경은 광범위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동토를 비롯해 얼음이 녹으면서 명태 서식지는 더 북쪽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는 2019 북극 보고서(Arctic Report Card)에 기술되어 있다.

한 생산자는 『지난 2주 동안 조업은 천천히 이

루어졌지만 B시즌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있는 일이다』며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조업 시즌의 전체 결과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베링해 B시즌은 6월 10일부터 시작해 10월 31일까지이며 총 어획량은 대략 75만 7,651톤으로 예상된다. 어획물의 대부분은 연육, 가시제거 필렛(PBO), 껍질과 지방층 제거 필렛(deep skin) 형태로 가공된다.

명태에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불안정한 알래스카 연어 시장과는 달리 식품 서비스 분야를 저해시키는 지속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에도 불구하고 어가가 크게 변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의 주요 생산업체 2개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B시즌 PBO 필렛 블록의 평균 가격은 톤당 3,500~3,600 달러이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0년 7월 17일자



일본 주요 수산식품 4개사 니치레이만 이익 증가 2020년 4~6월 분기 연결, 외식·업무용 판매 부진

일본 주요 수산 식품 회사 4개사의 2020년 4~6월 분기 연결 실적은 모든 회사가 매출이 감소되고, 니치레이만 이익 증가를 달성했다. 니치레이는 가공식품과 저온 물류 부문에서 영업 이익의 대부분을 벌어들였다. 각사 모두 신종 코로나 감염 확대 영향으로 가정용 식품 판매는 견조한 반면, 외식·업무용 판매가 떨어졌다. 수요 감소로 시황도 침체되었다. 어업·양식업 부문의 고전도 눈에 띄었다.

연간 실적 예상은 니치레이가 매출을 하향 조정, 앞으로의 상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분기 진행마다 실적예상을 갱신해 나가기로 했다. 마루하니치로는 연간 예상은 곤란해 미정 상태로 하는 한편 2분기(누계) 실적에 대해서는 매출과 이익 모두 상향 조정했다.

<어업·양식업>

마루하니치로의 어업·양식 사업은 가다랑어 어획량 감소와 양식어 판매 감소 및 가격 하락으로 매출 감소 및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日本水産의 수산 사업은 어로가 정어리, 방어 어획이 순조로와 매출 증가 및 이익 증가가 된 반면, 양식은 일본 국내, 남미 모두 매출 감소 및 이익 감소를 보였다. 국내 외식·관광 수요 감소와 판매 가격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

極洋의 가다랑어·다랑어 사업은 국산 양식 참다랑어 사업이 견조한 양상이었지만 해외 선망 사업이 어획량 감소로 수지가 악화, 매출 감소 및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수산 상사>

마루하니치로 수산 상사 부문은 참치, 가리비 등 외식·업무용 유통이 부진해 매출 감소 및 이익 감소를 보였다. 수하 부문도 고급 상재의 판매 부진으로 매출 감소 및 이익 감소를 나타냈다. 日本水産의 가공·상사 사업은 일본 국내가 수리미 판매 수량 감소,

연어·송어 판매 가격 하락으로 매출 감소 및 이익 감소를 보였다. 니치레이의 수산 사업은 새우를 중심으로 외식·중식용 판매가 감소해 매출이 감소되고, 영업 손실 폭이 확대됐다. 極洋의 수산 상사 부문은 새우나 게 등의 판매가 부진, 매출이 감소되었지만, 연어·송어를 원료로 한 가공품 취급량이 증가해 이익률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되었다.

<가정용 냉동 식품>

마루하니치로 가정용 냉동식품 부문은 수고모리(집안에 틀어 박혀 있기) 수요 증가도 있어 쌀밥, 국수, 피자 등 주식 상품의 매출 증가에 따라 매출 증가 및 수익 증가를 나타냈다.

日本水産의 식품 사업 가공은 일본 국내, 해외 모두 가정용 식품(냉동식품, 냉장상품) 판매가 견조한 추이를 보여 이익이 증가했다. 니치레이의 가공식품 사업 가정용 조리 제품은 치킨 가공품이나 쌀밥 류 등의 주력 카테고리 중심적으로 주력 제품이 호조를 보여 이익이 증가했다. 극양의 냉동식품 세그먼트 시판용 냉동식품은 쌀밥류나 생선조림 등 판매 아이템 다양화에 노력해 판매가 신장했다.

<해외>

마루하니치로의 해외 사업은 아시아·오세아니아 부문이 태국에서의 애완동물 식품 사업 호조에 더해, 뉴질랜드에서의 어획 호조, 비용 절감으로 크게 이익이 증가했다. 북미 부문은 수리미 가격 하락과 일본용 판매 지연, 알래스카 대게 생산 판매 지연 등으로 매출 감소 및 이익 감소를 보였다. 日本水産은 가공·상사 사업에서 북미 쪽이 명태 수리미나 필렛 판매 수량 감소와 인건비 등의 비용 증가로 매출 감소 및 이익 감소를 나타냈다. 유럽은 외식이나 유람선용 판매가 급감해 매출 감소 및 이익 감소를 보였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8월 11일자



코로나로 “조리 시간 늘었다” 전체의 32.9%

일본정책금융공고 7월 소비자 동향 조사

일본 정책금융공고(일본공고)는 지난 8월 5일 7월에 실시한 소비자 동향 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라 코로나로 식품 구매 방법이나 조리 시간·횟수의 변화에 대해서도 전체와 남녀별, 여성 연령대별로 조사했다.

내식 증가를 반영해 「조리 시간이나 횟수가 늘었다」고 대답한 것은 전체의 32.9%, 특히 40대 여성은 53.9%로 절반 이상이 되었다.

조사는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은 인터넷 조사로 전국의 20~70대 남녀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식품의 구입 방법에 대해 변화가 있었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25.8%의 소비자가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이용이 늘어난 구입 방법은 「인터넷」이 38%, 「양판점·슈퍼」가 29.1%, 「테이크 아웃」이 27.3%였다.

인터넷으로의 구입이 늘었다고 답한 것은 30대 남성이 51.4%, 60대 남성이 53.7%로 과반수를 넘긴 외에 70대 남성도 45.5%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

인터넷에서의 구입이 늘어난 사람 중 52%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싶다」고 답했다.

인터넷에서의 농림 수산물의 구입처를 묻는 항목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이 30.1%, 「할인점 인터넷 주문」이 21.9%, 「생산자 직판」이 20.4%로 나타났다.

음식의 지향점에 대해서는 1월에 실시한 지난 조사에서 「간편화」가 조사 시작 이후 처음으로 「경제성」을 상회했지만 다시 역전, 「경제성」이 37.7%(전회 대비 2.1 포인트 감소)로 3분기 연속 증가했다. 「간편화」는 33.6%(전회 대비 3.3 포인트 감소)였다. 「건강」은 39.7%(전회 대비 1.3 포인트 감소)으로 3분기 연속 하락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8월 12일자

일본 「재고 통계」 2020년 5월말

냉동 참치 17% 증가한 4.5만톤, 냉동 오징어 1% 증가한 1만톤

일본 5월말 전국 수산물 재고는 전년 동월 대비 3% 감소한 77만 6,693톤이었다.

냉동 연어·송어와 냉동 고등어, 냉동 수리미 등 대부분의 어종이 전년을 밀돌았다.

냉동 고등어는 3% 감소한 9만 3,962톤, 냉동 연어는 8% 감소한 6만 8,715톤, 냉동 문어는 13% 감소한 1만 2,241톤.

냉동 수리미는 8% 감소한 4만 6,415톤이며, 이 가운데 명태 수리미는 5% 감소했다.

전년을 웃돌았던 것은 냉동 참치로 17% 증가한 4만 5,136톤이었다. 눈다랑어는 46% 증가, 날개다랑어는 2.4배 증가했다.

냉동 오징어는 1% 증가한 1만 138톤. 냉 새우는 전년 수준인 4만 6,886톤이었다.

※ 전년 동월 대비는 조사 계속 냉장고만의 비교이기 때문에 단순히 전년 동월과 비교한 수치와 다름.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8월 11일자



日 원양어선 지원 요청, 자민당 의원 연맹이 아소 총리에게 건의 코로나 재난으로 조업 위기, 비용 증가 분 등 지원 요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라 일본 가다랑어·참치 어선이 외지에서 선원과 직원 교체를 못하고 곤경에 빠져있다.

조업을 계속하지 못할 위기에 몰리고 있는 어선도 있기 때문에 자민당의 가다랑어·참치 어업 추진 의원 연맹(스즈키 슌이치 회장)은 최근 일본 아소 다로 재무 장관에게 가다랑어·참치 어선 등 원양 어선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지원 건의에는 동 의원 연맹의 스즈키 회장과 하마다 야스카즈 회장 대리, 이토 신타로 간사장, 마키노 교오 부간사장, 이바야시 다쓰노리 사무총장이 함께 방문했다.

7월 10일 의원 연맹에서 결의한 「가다랑어·참치 어업을 포함한 원양어업을 지켜낼 긴급 결의」에 예비

비를 포함, 추경 예산 반영 등의 대응을 촉구했다.

스즈키 회장은 아소 장관에게 요청서를 건네고 어업공제·적립사업의 기금 확충 및 외국항 정선 기간에 발생하는 경비 지원 조치 외에 선원교체나 귀국, 격리 대기에 필요한 비용 증가 분 지원을 요청했다.

아소 장관은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한다. 7월 14일 아소 장관에게 요청한 후 다음 날인 7월 15일에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에게도 요청했다.

사무국에 따르면 이 8월 9일 시점에서는 해외에서 발이 묶여 있던 일본의 원양 어선 28척 가운데 가다랑어·참치 어선 26척이 아직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8월 6일자

일본 고등어 수출 1~6월 11% 감소, 11만톤 미만 베트남 40% 증가, 아프리카 침체

올해 상반기(1~6월)의 일본산 고등어 수출량은 10만 8,97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에 그쳤다. 평균 단가는 전년 동기 수준인 kg 당 122 엔이며, 수출 금액도 11% 감소한 132억 9,400만 엔이었다.

베트남, 필리핀용 등은 신장된 반면 이집트와 나이지리아용 등은 떨어졌다.

국가별로는 수출량이 가장 많았던 것은 베트남 용으로 2만 8,531톤(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이었다. 베트남만으로도 수출량의 26%로 약 4분의 1을 차지했다. 단가는 129 엔(3% 상승), 금액은

36억 7,648만 엔(41% 증가)으로 크게 늘었다.

베트남 공장에서 빼 없는 생선 등 일본 시장용 토막이나 조림·구이 등의 가공 수요가 높아진 것 같다. 두 번째로 많았던 것은 이집트용으로 1만 7,524톤(8% 감소), 단가는 123 엔(9% 상승), 금액은 전년 동기 수준인 21억 5,846만 엔이었다. 3번째로 많았던 태국용도 1만 4,035톤(39% 감소), 단가 110 엔(1% 상승), 금액 15억 3,848만 엔(38% 감소)으로 부진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8월 12일자



양식 참돔으로 세계 최초 ASC 취득 에히메현 다이니치와 内海水産 동시 취득

양식업 지원과 수산 가공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다이니치(에히메현 우와지마시)와 관련 양식업자 内海水産(에히메현 아이난정)은 지난 6월 29일자로 양식업관리협의회(ASC)의 국제 인증(생산단계 인증)을 취득했다.

참돔 양식 인증 취득은 세계 최초라고 한다.

다이니치 玉留一 사장은 『세계적인 해산물 수요의 증가로 최근에는 남획에 의한 천연 자원 고갈이 우려되고, 기르는 어업(양식업)이 주목된다. 이런 상황에서 ASC 취득은 수산업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해 2년 전부터 착수, 노력해 왔다. 국내외의 판매처와 함께 조금이라도 SDGs(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활동에 노력하고 싶다』고 했다.

内海水産 織田太一 사장은 『인증 취득은 매우 기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속 생산 가능한 양식

방법의 정밀도를 한층 더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SC는 자연 환경과 노동 환경 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양식업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에 돔, 큰민어(오오니베) 인증 기준을 발효했다. 지중해 유럽 바다농어(유럽피언 시바스)나 귀족도미(유럽피언 헤다이) 양식에서 이 인증을 취득한 예가 있지만 참돔 양식에서의 취득은 이번이 처음이다.

ASC의 크리스 니나스 CEO는 『일본에서 매우 중요한 참돔이라는 어종으로 환경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노동 조건이나 지역과의 좋은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양식업이 한층 더 확대되어 업계의 안정과 발전으로 연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7월 29일자

2019년도 어패류 자급률 3% 포인트 하락 56%

농수성 1인당 공급 소폭 감소 23.8kg

일본 농림수산성이 8월 5일 발표한 2019년도 식량 수급표(추정치)에 따르면 식용 어패류의 자급률(중량 기준)은 전년도보다 3% 포인트 하락한 56%였다.

국민 1인당의 연간 어패류 공급량은 0.1kg 감소한 23.8kg. 한편, 육류는 전년도 같은 양인 33.5kg이 되어, 해산물과의 차이가 더 벌어졌다.

어패류 자급률 하락은 일본 국내 쾅치나 고등어 등 흥어가 제일 큰 원인이었다. 비식용을 포함

한 해산물 전체 자급률은 3% 포인트 하락한 52%, 해조류도 3% 포인트 하락한 65%였다.

국민 1인당 어패류 소비량은 「신선, 냉동」이 1kg 감소한 7.8kg, 「통조림」이 전년도와 동일한 1.4kg. 해조류는 0.1kg 감소한 0.8kg이었다.

조식료(粗食料)로써의 어패류 연간 일본 국내 소비량은 1인당 0.1kg 감소한 44.9kg이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8월 11일자



수산업 코로나로 33% 매출 감소 응답

일본 종합지구환경연구소 등 조사, 魚価 침체와 이벤트 감소

일본 종합지구환경연구소(지구연) 과 수산 연구·교육기구, 도쿄 대학 등의 연구진은 22일 전국 각지의 수산 관계자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영향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 재난에 의한 매출 감소 폭(전년 동기 대비)은 어업·양식업자에서 평균 33%, 가공 유통·소매·외식 등 관련 업체가 31%였다. 대체로 단가 및 이벤트류 감소가 큰 요인인 외에 어업·양식업자의 경우 판로 감소, 관련 업체에서는 향후 출하 전망 불투명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강했다.

발표된 것은 5월 29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설문 조사로 7월 8일 현재 결과이다. 어업·양식업자 108명(평균 연령 46.3세)과 관련 업체 242명(평균 연령 47.9세)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어업·양식업자는 85%, 관련 업체는 75%가 코로나 유행병으로 수산업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전년 동기 매출을 100으로 했을 때 올해 매출은 어업·양식업자의 경우 67, 관련 업체는 69로 답했다.

어업·양식업자의 평상시 거래처는 어협 계통이 60% 정도로 최대였고, 다음이 가공업체 및 양판점, 체인 음식점 등 기업, 생선 가게와 레스토랑 등 개인 사업자 등의 순이었다.

이 거래처에 대한 판매량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라는 응답이 나온 반면, 인터넷 판매는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또한 코로나 이전부터 소비자에게 직판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온 어업·양식업자는 다른 업체에 비해 코로나로 수산업이 나빠졌다는 응답 비율이 낮았다.

인터넷 직판이 많았던 응답자 그룹은 수산업이 나빠졌다고 답한 비율이 64%로 그렇지 않은 그룹의 93%보다 훨씬 밑돌았다. 인터넷 이외의 직판이 많았던 응답자 그룹도 수산업이 나빠졌다는 응답은 79%로, 그렇지 않은 그룹의 100%보다 낮았다.

연구팀은 『다양한 판로를 가진 경우 코로나 영향이 완화되었다. 인터넷 판매와 직판장 이용도 유효하다고 생각, 소비자, 생산자를 비롯해 그 양자를 잇는 수산 관련 사업자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향후 시장 데이터 등 객관적 평가와 함께 조사 결과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7월 29일자



일본 DHA 등 기능성 소재 시장 약 4% 증가 2019년도 914억 엔, 판로 확대 도전

일본의 시장 조사기관인 야노경제연구소(도쿄도 나카노 구)에 따르면 등푸른 생선 등에 들어있는 DHA(도코사헥사에노산)와 EPA(다가 불포화지방산) 등 건강 기능성 식품 소재 2019년도 일본 국내 시장 규모(유통 금액 기준)는 913억 8,600만 엔으로 전년 대비 3.8% 늘었다.

이 회사는 주 용도인 건강식품 시장 확대가 견인했으며, 일반 식품도 건강을 부가가치로 한 제품 개발이 활발해지고 건강·기능성 식품 소재 수요 확대에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2020년도 코로나로 전년도보다 하락 예측>

이 회사는 4~6월, DHA와 EPA, 계나 새우의 껍질 등에 들어있는 키틴과 그 가공품인 키토산을 비롯해 심황(강황), 글루코사민, 콜라겐 등 총 24개 건강 기능성 식품 소재를 대상으로 유통 금액 기준 시장 규모를 조사, 계산했다.

이 회사는 2020년에는 이 시장 규모가 872억 2,500만 엔(전년 실적 대비 4.5% 감소)으로 예측했다.

신종 코로나 재난 영향으로 면역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소재는 신장되는 한편, 외식 음주 기회 감소로 간 기능을 강화하게 되는 심황 등의 판매량은 줄어 전체적으로는 전년을 밑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일본 국내 건강식품 시장은 향후에도 완만한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건강·기능성 식품 소재 시장은 소재 공급 기업 간의 경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며, 특히 원료 공급 업체는 신소재 개척 및 새로운 판로 확대가 큰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사는 고 연령층의 건강 지향을 배경으로 건강·기능성 식품 소재의 일반 식품으로의 용도 확대를 계속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일반 식품 제조시 건강·기능성 식품 소재의 용이성(가격, 가공 적정 등), 일반 식품 제품화 시의 애플리케이션(응용, 실용화) 제안 능력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7월 29일자

일본 슈퍼 수산 6% 매출 증가 5개월 연속 신장 20년 6월 기준 점, 생선회 등 생식 회복, 반찬은 감소폭 축소

일본 전국소매협회가 발표한 6월 판매 통계에 따르면 수산 부문의 기준 점 매출은 5개월 연속으로 일제히 전년 동월을 상회, 모두 6% 가량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유행에 따라 내식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냉동 생선과 염건 제품의 거래는 안정을 보였다.

한편 부진이 계속되고 있었던 생선회 등 생식 관련은 아버지의 날 수요도 있어서 회복되었다. 제철 기다랑어는 부진했다.

반찬 부문은 여전히 대량용 상품의 거래가 침체되어 전년 대비 하락세였지만 3-5월에 비해 감소폭은 줄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7월 27일자



새우 세포 배양 육, 저비용으로 대량 생산 연구 시작 인테그리 컬처社 등 2022년 목표로 상품화

세포 배양 스타트업 인테그리 컬처(도쿄도 분쿄구)는 7월 20일 싱가포르 최초의 세포 농업 기업의 Shiok Meats Pte. Ltd.(Shiok사)와 공동으로 새우 세포 배양 육(肉) 연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인테그리 컬처의 독자 기술을 기반으로 혈청 성분을 첨가하지 않고 새우 세포를 저비용으로 대량 배양하는 기술을 개발해 2022년 경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테그리 컬처의 배양 기술은 동물 체내를 본뜬 환경을 구축. 세포 배양의 고비용 요인이었던 성장 인자의 외부 첨가가 불필요해 이론적으로는 모든 동물 세포를 대규모로 저렴하게 배양할 수 있어서 화장품 재료에서 식재료까지 폭 넓은 용도가 예상

된다고 한다.

지금까지 소와 가금 세포에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공동 연구로 갑각류 세포로도 확장해 장기적으로는 새우 세포 배양 육을 저렴하게 대규모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hiok사는 줄기 세포 연구자인 Dr Sandhya Sriam와 Dr Ka Yi Ling가 공동으로 설립했다. 세포에서 식육을 생산해 깨끗하고 질 좋은 건강한 어패류나 식육을 제공하는 것을 미션으로 내걸고 있다. 새우, 게, 가재 등 갑각류의 세포 배양 육 개발에 나서고 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7월 27일자, 일간 수산경제신문 2020년 7월 22일자

일본 체인스토어협회 참치와 돔 호조, 생가다랑어는 저조 일본 전국 슈퍼 20년 6월 수산 매출

대기업·중견 슈퍼가 가맹하는 일본 체인스토어협회의 6월 판매 통계(잠정치, 기준 점 기준, 부가세 제외)의 수산물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5.6% 증가했다. 정부의 외출 자제 요청이 해제되었지만 재택 근무 등에 의한 내식 수요가 계속되면서 식료품은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였다.

수산은 모든 생선회와 참치, 돔, 문어, 연어, 방어, 장어 장어구이의 움직임이 좋고, 건 멸치와 어란, 냉동 생선 등도 호조를 보였다. 제철인 생

가다랑어와 통 생선 거래는 약세를 보였다.

반찬은 2.1% 감소했다. 튀김 등의 온 반찬 움직임은 둔했다. 냉 반찬은 일식도 고전. 도시락, 초밥의 움직임은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었다고 협회 측은 밝혔다.

이 협회 회원사 수는 6월말 현재 56개 점포 수는 1만 806 점이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7월 27일자



아르헨티나, 포클랜드 해외 영토 지정 관련 EU 압박 미래 포클랜드 주권 회복 위한 정책 추진

아르헨티나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의 무역협정에서 포클랜드가 해외 영토 목록에 포함되지 않도록 EU를 압박할 것이라고 8월 7일에 발표했다.

아르헨티나에 따르면 이러한 아이디어가 EU의 지지를 받았으며 영국은 분쟁 지역인 포클랜드가 무역협정 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압박 받을 것이라고 한다.

아르헨티나는 또한 남대서양 해역에서 석유 회사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 법적 위협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고 미주 기구에 포클랜드에 대한 주권 회복을 다시 주장할 예정이다. 아르헨티나는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아르헨티나가 주권을 주장하거나 영국과 분쟁 중인 해역에서 활동하는 석유 회사에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 회사들은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반잠수식 플랫폼 계약을 담당하며 2015년부터 포클랜드에서 200km 떨어진 곳에서 석유 탐사를 시작했다.

아르헨티나는 이번 달에 영국과 회담을 개최할 예정으로 동 회담에서 남대서양 불법 어업 제재와 포클랜드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또한 포클랜드(아르헨티나에서는 말비나스 제도)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국가 위원회를 창설하는 두 가지 법률을 통과시켰다.

UN 탈식민 위원회(Decolonization Committee, C24)는 8월 6일에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에 대한 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칠레, 볼리비아, 쿠바, 에콰도르, 니카라과,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C24에 포함된 모든 라틴 아메리카 국가가 찬성했으며 몇몇 영연방 국가들도 찬성했다. 아르헨티나는 『중장기적으로 국가 정책의 윤곽을 잡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이니셔티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말비나스 외무부 장관 Daniel Filmus는 최근의 움직임에 대해 『어려웠지만 우리는 해냈고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말비나스를 되찾기 위한 모든 계획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준다』며 『국가들을 설득해 연합을 만들고 영국과 연계된 국가들이 우리 주장에 손들어 주도록 해야 했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MercoPress, 2020년 8월 7일자

나미비아 정부, 쿼터 경매 실시 전쟁이, 민대구, 아귀

나미비아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어업쿼터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어업부 장관인 Albert Kawana는 정부가 전쟁이(horse markerel), 민대구(hake), 아귀 쿼터를 경매로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경매 쿼터는 전쟁이 7만 2천톤, 민대구 1만 1천톤이다. Kawana 장관은 나미비아는 국제 시장에서 의약품을 조달하기 위한 외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매를 추진했으며 경매로 확보한 자금은 의료 물품 비축에 사용될 것이라

고 말했다. 이번에 경매에 부치는 전쟁이, 민대구 정부 쿼터 60%는 과거 몇 년 동안 대부분 국가어업회사(Fishcor)에 배정되었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외국인을 포함한 열린 경매로 거래되며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입찰자에게 판매될 예정이다.

Kawana 장관은 나머지 40%의 쿼터는 고용을 보전하는 관점에서 나미비아 회사를 대상으로 경매에 부칠 예정이며 모두에게 개방된 경매보다 매우 저렴하게 가격을 설정할 것이라고 알렸다.

* 기사 출처: namibian, 2020년 8월 10일자



대구, 겨울 동안 베링해에 머물지 않을 수도

NOAA 태깅 프로젝트 결과

과학자들은 북베링해로 이동하는 태평양 대구 개체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동에 관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했다. 미국해양대기청(NOAA) 연구진은 표본 크기는 작지만 대구가 베링해 얼음 아래에서 살 수 없다고 믿고 있다.

NOAA Fisheries의 어류 생물학자인 Susanne McDermott는 작년에 38마리의 어류를 표지 방류했고 겨울 동안 북부 베링해에 머문 어류는 한 마리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우리는 실제로 얼음 아래에서 하나의 태그(표지)를 찾아 복구했다. 이 케이스는 베링해협 인근에서 발견됐지만 1월에 얼음 아래에서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이 물고기가 실제로 거기까지 갔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태그가 얼음이나 해류에 의해 이동되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태그 중 일부는 90일, 210일, 심지어 360일 후에 발견된 것도 있다. McDermott는 여태까지 작년 가을에 부착한 38개의 태그 중 30개를 복원했다고 말했다.

McDermott와 그녀의 동료 연구자들은 ‘대구가 북베링해에서 산란할 수 있는지’, ‘베링해로 회귀하는지? 아니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대구에 태그를 붙혀 방류하고 있다.

2017년부터 북베링해에서 냉수대가 사라져 대구 서식이 30% 이상 증가해 이러한 질문들이 중요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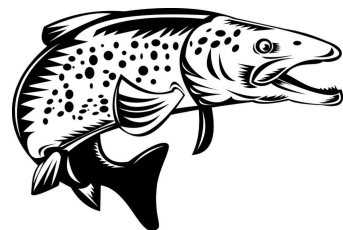
그녀는 『2010년에 냉수대가 넓게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2017년에는 여전히 넓지만 조금 갈라져

있으며 2018년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2019년에는 북쪽에만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들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어류들이 냉수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고 피하기 때문이다. 냉수대가 없어지면 어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조금 넓어진다』 고 말했다.

McDermott는 대구 9마리가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St. Lawrence 섬 인근의 북베링해에서 머무른 후 남베링해로 흩어졌으며 일부는 국제 날짜 변경선을 넘어갔다고 말했다.

그녀는 『태그 30개 중 6개가 러시아 수역에서 회수되었다. 3개는 9~12월, 3개는 1~3월, 6월이나 7월에 회수된 것은 없었다. 이는 대구가 러시아와 미국의 경계를 넘어 이동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우리는 러시아 수역으로 이동한 뒤 알래스카 수역으로 돌아오는지 아닌지, 이러한 움직임이 일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좀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 기사 출처: ALASKA PUBLIC MEDIA, 2020년 8월 10일자





연어 머니, 노르웨이 대구 양식에 재투입

대구 양식 붐피 이후 10년, 활성화 위해 투자

노르웨이 대구 양식업계가 붐피되고 양식업자들이 파산한지 거의 10년 뒤, 몇몇 양식업자들이 다시 대구 양식업에 투자하고 있다.

억만장자 Roger Halsebakk의 투자 회사인 Ronja Capital사는 대구 양식업 분야에 낙관적이다.

노르웨이는 2019년에 양식 연어 110만톤, 금액으로 720억 크로네(79억 달러)를 수출했다. 명태는 18만톤, 100억 크로네(11억 달러)를 수출되어 두 번째로 많이 수출된 어종이었다. 수출된 명태는 어선 어업으로 잡은 어획물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Ronja Capital사는 대구 양식 회사인 Norcod사의 지분을 1,500만 크로네(160만 달러) 인수했으며 추가로 증자에 참여하여 2,000만(220만 달러)를 투자, 최종적으로 Norcod사 지분의 10%를 소유했다.

Norcod사는 현재 노르웨이 Trondelag 지역 내 다른 두 곳에서 대구 양식을 하고 있다. Norcod사의 Hilde Storhaug 총괄 관리자는 『대구가 잘 성장하고 있으며 폐사율이 낮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Norcod사는 2021년 봄에 6,500톤을 첫 출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2년 목표는 9,500톤이다.

Storhaug는 어가에 대해서 『야생 대구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될 것으로 기대하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노르웨이 수산물위원회(NSC) 통계에 따르면 어선 어업으로 잡은 대구 선어의 올해 수출 가격은 kg당 36.4 크로네(4달러) 정도였다. 2000년대 초 중반 노르웨이에서 30개사 이상이 대구 양식장을 운영했다. 몇몇은 대구만 양식했다. Mowi사, Grieg Seafood사와 같은 연어 양식 기업들도 당시 대구 양식을 병행했다. 아울러 바렌즈해 명태 자원이 급증하여 쿼터가 늘어나 가격이 하락했다. 게다가 2008년에 금융위기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대구 양식업 회사들은 생산 비용이 판매 가격보다 많아지며 하나씩 파산했다.

과거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 연구 기관인 Nofima는 연구를 계속했다. 현재 양식되는 명태는 6세대로 이전보다 양식에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명태 양식에 다시 뛰어든 회사는 Norcod사만이 아니다. Codfarm사, Statt Torsk사 등도 현재 명태를 양식하고 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0년 8월 3일자

모리타니 대일 수출 냉동 문어 가격 동결

전체 사이즈 모두 9월 1일까지 해당

모리타니아 수산물무역협회(SMCP)는 최근 7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냉동 문어의 대일 수출 가격(톤 당 가격, FOB, 중개료 별도)을 발표했다. 단지(항아리), 트롤 모두 모든 사이즈에서 전회(7월 29일까지), 전전회(6월 30일까지)와 동일 가격이었다. 모리타니아는 7월 15일 여름 조업이 시작됐다. 어획량은 순조롭지만 단지 조업은 약간 큰 사이즈가 많다고 한다. 가격은 하절기 어획물이 대상이 될 것 같다. 상사 소식통은 『일본 업체는 소형인 6번, 7번 사이즈를 중심으로 매입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고, 또

다른 상사 관계자도 『일본 국내 소비가 순조로운 때 문에 적극적인 매입이 진행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각 사이즈 별 톤 당 가격은 다음과 같다.

<단지> 3번 = 8,000달러 ▽ 4번 = 7,300달러 ▽ 5번 = 7,000달러 ▽ 6번 = 7,500달러 ▽ 7번 = 7,000달러 ▽ 8번 = 6,500달러

<트롤> 3번 = 7,500달러 ▽ 4번 = 6,800달러 ▽ 5번 = 6,500달러 ▽ 6번 = 7,000달러 ▽ 7번 = 6,500달러 ▽ 8번 = 6,000달러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8월 5일자



인도산 바나메이(흰다리새우) 20% 감산

미나토신문 2020년 새우 특집 / 생산 동향

금기는 생산, 소비 양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유행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인도에서는 3월에 시작된 봉쇄 조치 때문에 바나메이(흰다리새우) 퍼스트 그룹은 지난해보다 대폭 감산했다. 세컨드 그룹용 지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기의 생산량은 전년의 80% 정도가 될 것이라고 일본 상사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베트남의 양식 바나메이는 2월에 치어 새우 지입을 채웠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았다. 또한 양식 기술의 향상으로 생산 사이즈 조정이 가능한 베트남의 양식업자는 소비국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소형 사이즈를 노려 지입, 수급 균형이 잡히고 있다고 회사 관계자는 보고 있다.

<아르헨티나 붉은 새우 신물 공급 지연도>

아르헨티나에서는 노사 협상이 길어져 아르헨티나 붉은 새우 선동 제품의 신물 반입은 11월에 될 전망이다. 지난해는 자원 관리 관점에서 조업 해금

이 예년보다 3주 정도 늦은 6월 중순에 시작했다. 이번 어기는 더 늦게 시작되지만 신종 코로나로 수요가 적어 6월 하순 시점에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보이지 않는다고 상사 관계자는 말했다.

<FAO 2018년 세계 생산량 3% 증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집계한 2018년 새우류 생산량은 전년 대비 3% 증가한 945만 9,612톤이었다. 이 중 전체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양식물은 5% 증가한 600만 4,353톤이었다. 양식 바나메이와 양식 블랙 타이거 모두 전년을 넘어 썼다. 천연물은 전년 수준인 345만 5,260톤. 아르헨티나 붉은 새우를 주요 품목으로 하는 아르헨티나는 5% 증가한 25만 4,962톤으로 신장되었다.

수출 중심인 주요 생산국은 인도가 6% 증가한 68만톤, 베트남이 9% 증가한 78만톤, 인도네시아가 1% 감소한 91만톤이었다. 에콰도르는 16% 증가로 신장되었다.

세계 천연 새우 생산량					세계 양식 새우 생산량				
국 가	2016년	2017년	2018년	전년비	국 가	2016년	2017년	2018년	전년비
중국	1,197,659	1,133,182	1,089,433	96%	중국	1,883,334	1,936,650	2,051,921	106%
인도	420,724	467,961	445,565	95%	인도네시아	691,604	916,488	907,988	99%
인도네시아	283,943	304,468	280,678	92%	베트남	633,428	708,404	775,000	109%
아르헨티나	178,520	243,401	254,962	105%	인도	521,269	643,161	682,300	106%
베트남	156,592	164,446	142,411	87%	에콰도르	422,000	440,000	510,000	116%
미국	130,722	131,888	130,914	99%	태국	327,561	359,697	362,910	101%
말레이시아	110,858	114,640	115,519	101%	멕시코	127,814	150,030	157,934	105%
멕시코	97,257	103,914	108,928	105%	방글라데시	79,510	81,722	70,979	87%
그린란드	86,002	94,470	91,394	97%	브라질	59,500	60,000	62,000	103%
캐나다	109,610	82,850	85,066	103%	필리핀	61,682	62,421	59,587	95%
태국	42,453	33,051	52,084	158%	사우디	24,055	39,200	56,100	143%
나이지리아	24,556	49,117	49,138	100%	이란	21,331	32,332	47,859	148%
페루	31,888	20,738	39,145	189%	말레이시아	43,248	45,781	45,913	100%
필리핀	36,342	34,160	38,001	111%	온두라스	23,000	31,500	31,500	100%
브라질	34,000	33,300	33,300	100%	페루	20,441	27,492	29,717	108%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7월 27일자



중국, 개도국 선박에 수산보조금 지원 지속 주장 미국은 중국 개도국 지위 반대

세계무역기구(WTO)는 수산보조금 논의를 7월 21일에 재개했다. 12월 31일까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이다. 하지만 중국의 개도국 지위 요청은 이미 촉박한 기한에 또 다른 압박이 될 수 있다.

이 회의에서 중국의 Zhang Xiangchen WTO 주재 중국 대사는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을 위한 '의미 있고 효과적인' 특별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SDT)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과 다른 국가들은 경제 대국인 중국과 같은 국가가 개도국 지위를 요구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며 반대했다.

Dennis Shea 미국 WTO 주재 미국 대사는 현재 제안된 특별대우는 '금지 초안의 모든 유익한 효과'를 완전히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연말까지 수산보조금을 감축하기 위해 협

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과거 중국은 어떠한 제한에도 동의하지 않았었다.

수산 보조금이 가장 많은 국가들은 중국, EU, 미국, 한국, 일본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년 70억 달러 정도의 수산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중국 어선단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

인도는 소규모 및 전통적인 어업에 중점을 둔 개도국 면제 제안서를 제출했다. 인도의 제안 조건을 살펴보면 3년 연속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5,000 달러를 초과한 국가의 선박은 면제 자격에 해당되지 않아 중국 선박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7월 27일자

신선 대서양 연어 전주 대비 1% 하락한 52.23 크로네 노르웨이 연어 수출 제30주 신선 수출은 전주보다 5.2% 감소

노르웨이 통계청에 따르면 노르웨이 국산 대서양 연어 제30주(20~26일)의 신선 수출 단가는 kg당 52.23 크로네로 전주 대비 0.9% 하락했으며, 전년 동주 대비 7% 하락했다. 신선 수출량은 1만 6,482톤으로 전주 대비 5.2% 감소, 전년 동주 대비 12.5% 감소했다.

냉동품의 수출 단가는 전주보다 1.8% 하락, 전년 동주 대비 0.3% 하락한 kg 63.39 크로네. 수출량은 전주 대비 65.6% 증가한 265톤. 지난해 같은 주에 비해서는 1.1% 늘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7월 31일자



새우 신종 바이러스가 기승 DIV1, 중국 발 아시아 확산 우려

중국 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가운데 새우 양식에서도 중국을 진원지로 하는 'DIV1' (十脚目虹色 바이러스) 라는 독성이 강한 신종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올해 2월에 중국 양식 새우 일대 산지인 광둥에서 재발한 데 이어 5월에는 바다 건너 대만으로 확산되었다. 동남아시아의 새우 양식 주요국으로 감염 범위가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으며 세계 양식 산업을 뒤흔들고 있다.

DIV1는 2014년 12월에 절강 중국산 양식 새우의 주요 종인 태평양 흰새우에서 처음 발견 된 신종 바이러스다. 이후 중국 전역에 퍼져 2018년까지 11개 성의 새우 양식장과 부화장에서 발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2월에는 양식 새우의 일대 산지인 광둥성 주장 유역의 3분의 2에 달하는 새우 양식장이 감염되었다. 양식장 물량의 95%에 달하는 대량 폐기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 후, 여름철 수온 상승과 함께 DIV1 재앙은 중식되었지만 올해 2월에 다시 광둥에서 감염 발병이 잇따라 광둥성 새우 양식장의 20~30%가 감염되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전했다.

6월 18일에는 대만 농업위원회가 5월 8일부터 2주 동안 전국의 새우류 양식장을 검사한 결과 중국을 진원지로 하는 'DIV1' 양성 반응이 가재 양식장 12개소, 왕새우 양식장 3개소, 자이언트 타이거 양식장 1개소에서 나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밖에 미확인 정보이지만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에서도 발생원이 없는 DIV1 감염 보고가 나오

고 있는 것 같다. 사태를 심각하게 본 인도는 4월에 전국의 새우 수입 및 부화장에 DIV1 경보를 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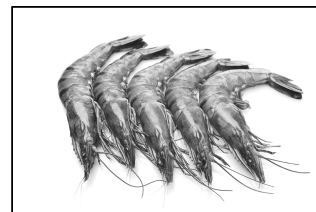
DIV1는 새우류에 강렬한 전염성과 치명적인 힘을 발휘하는 맹독성 바이러스로 감염 발각 후 2~3일 만에 폐사에 이르는 적도 있다. 그 치사율은 80% 이상 달할 수도 있다고 한다. DIV1 감염 질환 새우의 증상은 체색이 적색을 띄고, 며칠 후에는 껍질이 얇아져서 양식장 바닥에 가라앉아 폐사한다.

대상 종은 바나메이(흰다리새우)와 태평양 흰새우 외에 담수성 큰 징거미새우, 가재, 게류에 이르기까지 갑각류 중심으로 감염이 발병한다. 감염 경로는 불분명, 아직은 예방도 치료도 없다.

DIV1 바이러스 재난은 새우 양식 업계 사이에서 2005년에 중국, 아시아를 중심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조류 독감과 지난해부터 중국에서 폭발적으로 퍼진 돼지열(CSF) 등과 같은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위기감을 더해 가고 있다.

한편 DIV1 지금까지 인간에게 감염된 사례는 없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7월 16일자





러시아 어업 대기업 계열사, 극동 계 어업 협회 가입 「러시아의 계」社, 계 어업 대규모 진출

훗카이도 기선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명태를 연간 30만톤 이상 생산하는 러시아 어업 대기업 「러시아 어업회사」의 계열사인 「러시아의 계」社가 최근 정규 어업자들로 구성되는 러시아 극동 계 어업협회의 회원이 되었다.

동 협회는 극동 해역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방지를 위해 훗카이도 기선어업협동조합연합회와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러시아의 계」社는 지난해 10월 출자한 자회사를 통해 계 어획 할당 경매에 참가, 극동 해역의 상장 낙찰 물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등 계 어업에 대규모 진출했다.

지난 가을 개최된 계 어획 할당 경매에는 연간 약 4만 6,000톤 상당이 상장되어 극동 해역 낙찰 25 로트 중 이 회사의 자회사인 퍼시픽 클럽, 캄차카 클럽, 아틀란틱 클럽 등 3개사에서 10 로트를 낙찰받았다. 낙찰 가격은 292억 2,300만 루블에 달했다.

러시아 어업 회사는 2011년 「러시아 바다 생산」社

로 석유 트레이더인 푸틴 대통령의 동지 게나지·찌 무첸코씨 그 사위인 구레부 프랭크씨 등이 설립했다. 현재는 프랭크씨가 지배 주주이다.

푸틴 대통령은 2019년 5월 계에 대해 과거 어획 실적에 따라 할당량을 배분하는 역사적 원칙 50%를 경매로 대체하는 법률에 서명했다. 대다수 정보원들은 계 시장을 다시 분배하는 시스템 아이디어의 기원이 프랭크씨로 분석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과거 어획 실적에 따른 어획 할당량 배분을 하면 「러시아 어업회사」가 새로 극동 계 자원에 대규모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해 8월 상순에는 「러시아 어업회사」의 일부 자본을 받아 극동 지방에서 동일한 경영자 명의로 5개의 어업 회사가 등기를 완료했다.

계 어획 할당 배분 기간은 15년으로 어획 할당 경매 규칙으로는 낙찰자에게 5년 이내에 어선 신조 건조가 의무화되어 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7월 22일자

회원사 소식 및 정보 원고 접수

회원사 여러분에게 보다 알차고 참신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회원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나 각종 원고를 접수합니다. 회원사의 경조사, 사무실이전, 신제품 생산 등 각종 소식이나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제안 등을 아래 송부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관계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자료는 적극 원양산업지에 게재하겠습니다. 우리 원양산업지를 알차게 꾸미는데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 소 : 서울 서초구 논현로 83, 6층(양재동, 삼호물산빌딩)
한국원양산업협회 홍보·마케팅지원센터(우편번호 : 06775)
- 팩스 : 02-589-1630/1631/○ e-mail 송부시 : kosfa@kosfa.org



노르웨이 수산물 수출 상반기 3.5% 증가한 529억 크로네 NSC 발표, 연어가 약 70% 차지

노르웨이 수산물위원회(NSC)는 최근 노르웨이 1~6월 수산물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529억 노르웨이 크로네였다고 발표했다.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연어는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세계적인 연어 인기에 따라 송어도 함께 늘어났다.

대구는 어획 메인 시즌의 악천후 영향으로 신선물이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유행에 따라 대중 음식점용 거래 정체도 있어서 수량, 금액 모두 수출 실적은 냉동 제품을 밀돌았다.

상반기에는 가리비와 대구가 타격을 받았다.

브라질이나 이탈리아 등 대규모 시장에서의 감염병 확대 등도 큰 과제가 되고 있다고 NSC는 밝혔다.

거래처 대부분이 레스토랑인 왕게도 감소했다. 음식점 휴업과 비행 감소 양쪽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NSC는 말했다.

한편 6월부터 아시아 시장은 개선되었다고 한다.

상반기 주요 수출국은 한국, 미국, 네덜란드였다.

	수출 금액	전년 동기 비
연어	350억	102%
대구(신선)	16억	96%
대구(냉동)	19억	112%
송어	18억	110%
고등어	20억	147%
청어	18억	130%
새우	4억 4,900만	83%
왕게	2억 900만	80%
기타 포함 합계	529억	104%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7월 20일자



바 다

나 희 덕

바다를 저리도 뒤끓게 하는 것이 무어나
 파도를 깨뜨리는 뼈 부딪는 소리
 채 마르지 않아 똑똑 흘리며
 저 웃고 있는 푸른 살이 대체 무어나
 욕망의 물풀이 자라나는 기슭,
 떠나온 이보다 쫓겨온 이가 많은 뱃전,
 비틀거리며 발 디더온 생활,
 그로부터 파도처럼 밀려온 사람들이여
 그대들의 뼈가 부딪칠 때마다
 물결, 불꽃의 물결 늘 움직여
 왜 자꾸만 나를 살고 싶게 하는지
 왜 이리도 목마르게 하는지
 아는가, 뒤끓는 바닷속에 몸을 던진 사람들이여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ODA) 전문기관 지정 추진

「해양수산 ODA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 예고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ODA) 업무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행정 예고했다.

해양수산부는 신남방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연안국과의 해양수산 협력 강화를 위해 베트남 수산자원조성 관리모델 구축, 인도네시아 해양쓰레기 관리 개선, 콜롬비아 해양예보시스템 연구능력 확충 등 총 23개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없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19년 8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을 개정해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은 이 법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ODA) 전문기관은 다양한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발굴, 관리, 평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인력 보유 현황 등을 첨부해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전문기관 지정 심사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뒤 제출된 사업계획 등을 평가해 한 곳의 전문기관을 지정하게 된다. 전문기관의 지정

기간은 3년이며, 3년간의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등을 평가하여 최대 2년까지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고시가 제정된 후 올해 안에 전문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ODA) 전문기관이 지정되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은 물론, 사업 추진에 따른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여 신남방정책 이행 및 연안국과의 해양수산 국제협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0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동향 발표

전 세계 해적활동 증가, 서아프리카에 인명피해 집중

해양수산부는 2020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고가 전년 동기(78건)보다 약 26% 증가한 98건이 발생했으며, 선원납치, 인질 등 인명피해도 93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간 많은 해적사고가 발생했던 소말리아 해역에서는 청해부대 및 연합함대의 활동, 해상 특수경비원 승선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단 한 건의 해적공격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시아 해역에서는 해적사고가 전년 동기(22건) 대비 약 90% 급증(42건)하였는데, 이는 2019년 4분기 이후 싱가포르 해협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생계형 해상 강도 증가가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 세계 해적사고의 약 36%(35건)가 발생한 나이지리아, 베냉 등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역에서는 사고건수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지난 5~6월 외국적 어선에

승선했던 우리 국민(6명)이 납치되는 등 전 세계 선원납치 피해의 약 90%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아프리카 해역 연안국의 경우 불안한 정치정세, 취약한 해상보안, 빈곤 등으로 인해 일반 어민들이 해적 또는 테러단체에 가담하고 있다. 특히 해적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이지리아에서는 반정부 조직과 연계된 범죄활동이 육상과 해상에서 연일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 해역에서의 해적활동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서아프리카 해역 내 우리 선박 및 국민의 해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및 현지 선사에 관련 동향을 수시로 전달하며 선원 납치 사건이 주로 발생하는 고위험해역에서의 통항·조업금지 및 무장요원 승선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해기사 현장실습생의 권리보호를 위한 과태료 신설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는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18일 개정된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선사는 해기사 현장실습생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실습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이번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서는 동 규정과 관련한 위반 행위시의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된 「선박직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장 승선 실습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 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장 승선 실습 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기존 과태료 금액은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2019. 2.)’에 따라 상향된다. 선원 면허나 승무자격 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계속 승무시킨 경우와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에 대한 검사·심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결원이 생겼을 때 통보하지 않은 경우와 승선하는 해기사의 면허종이나 승무자격증을 선박에 갖추어두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다.

해양수산부는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선사 현장실습 안전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및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마련 중에 있으며,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법률 시행일(2020. 8. 19.) 전에 고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연근해 어업생산량 전년보다 4.6% 감소

해양수산부는 2020년 상반기(1~6월)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2019년 상반기에 비해 4.6% 감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연근해 어업 생산 동향 조사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총 36만 9천톤으로, 2019년 상반기(38만 7천톤)에 비해 4.6% 감소했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은 멸치 7만 2천톤, 고등어 2만 1천톤, 오징어와 갈치는 각 2만톤, 청어 1만 7천톤, 전갱이류 1만 4천톤 등이다.

전년 대비 어종별 주요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갈치(94.2%↑), 전갱이류(76.9%↑)는 생산량이 증가했고, 멸치, 오징어, 고등어, 청어, 참조기, 꽃게, 붉은대게, 가자미류 등은 전년 수준, 아귀(40.4%↓), 삼치(23.5%↓)는 생산량이 감소했다.

갈치는 겨울철(1~3월) 연근해 고수온 영향으로 어기가 3월까지 이어졌고, 봄철(5~6월) 동중국해의 온난한 해양환경(0~1℃↑)이 지속됨에 따라 어군의 북상회유가 활발해지면서 동중국해(제주 주변) 및 서해 남부해역으로 몰려드는 어군이 증가했다.

전갱이류는 최근 자원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겨울철 제주 주변해역과 봄철 경남, 경북 연안에서 순조로운 어황을 보였다.

반면, 아귀는 1~4월 동안 수산물 소비 위축의 영향으로 조업활동이 축소되어 생산이 부진했고, 5~6월에는 경북 연안에서 전년 평년 대비 1~3℃ 높게 형성된 수온의 영향으로 산란을 위

해 연안으로 모여드는 어군이 줄어들면서 생산량이 감소했다.

삼치는 주업종인 대형선망어업에서 어군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고등어와 전갱이류를 주로 조업함에 따라 생산이 부진했다.

한편, 2020년 상반기 연근해 어업 생산금액은 전년(1조 7,248억원)보다 3.6% 증가한 1조 7,873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주요 어종별 생산 금액은 오징어가 1,681억원, 갈치 1,664억원, 멸치 966억원, 꽃게 937억원, 가자미류 827억원, 붉은대게 680억원, 고등어 410억원 등이다.

2020년 상반기 연근해 어업 생산 금액의 어종별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갈치, 전갱이류, 고등어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6.1%, 70.3%, 35.5% 증가했고, 멸치, 오징어, 참조기, 붉은대게, 꽃게, 가자미류, 아귀 등은 전년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청어, 전어, 삼치는 전년 대비 각각 30.7%, 28.2%, 2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산업계 위기, 정부 추가 지원

주요 정책자금 상환 연장, 금리 인하, 대규모 수산물 소비쿠폰 발행 등

해양수산부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생산업체, 수산물 유통·수출업체를 위한 ‘수산분야 코로나19 대응 제4차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왔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4차 지원대책에서는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상환 연장, 금리 인하와 3차 추경예산을 활용한 수산물 소비자 할인쿠폰 발행, 해외 수산물 수출시장에서의 마케팅 등을 추진한다.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

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4개 수산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4개 수산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한다. 8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양식시설현대화자금, 피해복구자금, 어촌정착지원자금,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은 원금 상환기간을 1년씩 연장하며, 이를 통해 총 4천 8백여명의 어업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양식어업경영자금, 어선어업경영자금, 신고마을종묘어업경영자금, 원양어업경영자금은 앞으로 1년 동안 금리를 최대 1%p 인하한다. 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 어업인은 총 2천 7백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원금 상환과 금리 인하를 적용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수협은행 등 담당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전국적인 수산물 소비 활성화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210억 원 규모의 수산물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수산물 할인행사는 더 많은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품목별 20%, 1인당 1만원 한도로 진행되며, 특히, 시기별 생산량이 많은 제철 수산물뿐만 아니라 내수면 양식어종, 수출애로 품목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할인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는 전국 대형마트 6개사, 온라인 쇼핑몰 15개사, 수산유통 창업기업 6개사 등을 통해 진행된다.

추석 기간에는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통시장 할인행사’와 지자체와 연계된 ‘직거래 장터’도 예정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소비자들이 할인 대상 품목과 행사 개최 장소, 주요 할인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행사 안내 누리집(<http://www.fsale.kr>)을 운영하고, 경품행사 등 각종 이벤트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수출회복 지원>

해외시장 개척 및 수산물 수출 회복을 위해 51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비대면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 일본 등 12개국의 현지 온라인몰(40개)과 배송 플랫폼(13개)을 활용해 우리 수산식품의 입점과 판매를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현지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베트남, 태국, 대만 등 6개국의 홈쇼핑사(13개)와 현지 유명 인플루언서가 참여하는 생방송 채널(4개)을 통해 우리 수산식품을 판매하고,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을 기반으로 한국 수산식품의 요리방송, 맛보기방송 등 콘텐츠를 제작,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 해외 구매자(중국 등 6개국)와 우리 수출업체 간 온라인 무역상담회도 개최한다.



총 300억 원 규모의 수산분야 벤처창업펀드 최초 결성

수산 벤처기업·신기술 활용기업 등에 집중 투자

해양수산부는 7월 29일 총 300억 원 규모의 수산벤처창업펀드가 결성되어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등록을 완료한 'BNK 수산투자조합 제1호'와 '가이아 벤처창업투자조합 1호'는 수산분야에서 처음으로 결성되는 벤처창업펀드이다.

해양수산부는 용자·보조 등 정부의존적인 보조금을 탈피해, 민간 합작투자자 수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수산모태펀드를 운영해왔다.

지난해까지 정부의 수산모태펀드와 민간 투자자가 합동으로 출자해 결성한 수산펀드는 11개로 총 1,820억 원 규모이며, 이를 통해 2020년 6월까지 총 872억 원을 수산기업에 투자한 바 있다.

올해 처음으로 결성되는 '수산벤처창업펀드'는 수산분야 신규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특화된 펀드이다.

그간 조성된 수산일반펀드의 투자대상이 수산분야 전(全) 기업인 것과 달리, 수산벤처창업펀드의 투자대상은 창업 초기기업, 신기술 활용기업 등이다. 이번에 결성된 수산벤처창업펀드를 통해 앞으로 약 8년간 수산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와 회수를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수산벤처창업펀드를 비롯한 수산펀드 투자유치를 원하는 기업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누리집에 계



시된 수산펀드 운영 현황을 참고해 직접 투자문의 를 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투자유치 컨설팅 지원사 업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투자유치 컨설팅 지원사업은 사업계획서 고도화 등을 지원하여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운용사 대상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수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초기기업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 발굴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산벤처 창업펀드가 수산업 성장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유망한 수산기업이 더 많은 투자기회를 얻게 될 수 있도록 수산벤처창업펀 드를 원활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문의처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누리집
(www.apfs.kr) / 02-3775-6775

한국원양산업협회 부서별 연락처

임원실	성명	전화번호	비고
회장	윤명길	589-1600	
진무	이동욱	589-1602	경영지원본부장
전무	최경삼	589-1603	해외협력본부장
비서(주임)	조한솔	589-1601	

부서	성명	전화번호	담당
경영지원본부	기획총무부	오재경 이사	총괄
		강성현 차장	총무, 회계
		박설진 과장	경리, 예산
		공길웅 과장	기획자금, 생산통계
	조성환 과장	문서, 운전	
회원지원부	이성재 부장	589-1610	총괄
	소기동 차장	589-1611	노사, 선원
	김효상 과장	589-1619	무역제도, 수출통계
홍보마케팅지원센터	김현태 이사	589-1608	총괄
	김영수 과장	589-1609	홍보·마케팅지원

부서	성명	전화번호	담당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 1부	신현애 이사	총괄
		진호정 차장	선망
	최봉준 대리	국제협력	
	백상진 사원	연수·오징어	
해외협력 2부	이형균 부장	589-1616	총괄
	조성주 과장	589-1617	복양, 콩치
부산지부	-	최동환 주임	기타트블
		이형균 부장(겸직)	(051)
	김현애 과장	253-3388	총괄
	공인계량소	이영두 팀장	051)
이동주 팀장	253-3391	차량계량	차량계량

해외수산협력센터(세종)	센터장실	권현욱 센터장	044-868-7360	협력센터 총괄	국제협상지원팀	원태훈 전문관	044-868-7831	일반/지역수산기구 對 중국 업무 對 일본 업무
	기획운영팀	이희진 팀장	044-868-7834	행정총괄, 명예수산물 OFIS, 해외투자, 행정		유현주 전문관	044-868-7832	
		이재영 행정관	044-868-7837		김선경 전문관	044-868-7833		
	국제협상지원팀	양재길 팀장	044-868-7364	국제협상 총괄 일반/지역수산기구	해외진출지원팀	서규혁 행정관	044-868-7836	ODA 통계, 협의회
이하나 전문관		044-868-7363	윤유정 행정관			044-868-7838		

■ 협회 홈페이지 : www.kosfa.org ■ 팩스번호(서울) : 02-589-1630/1, (부산지부) : 051-253-3392, (해외수산협력센터) : 044-868-7840

명예해양수산물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사모아	오시영	1684-258-9900 syoh_2@hotmail.com
피지	김종태	679-330-7188 ckpfj@naver.com
페루	이호상	51-1-454-6394 asia@asiamaritima.com
인도네시아	이재원	62-21-8660-6278 imsindo@hanmail.net
가나	이윤홍	233-22-300772 skshipafrica@yahoo.com
세네갈	김점봉	221-33-853-0850 senegalkim@gmail.com
뉴질랜드	윤정환	64-3-344-1617 seajho@xtra.co.nz
미얀마	변경대	95-92-6204-1339 kevinbyun61@naver.com
남아공모잠비크	정연국	27-71-285-4131(+82-10-5353-7135) ygieong21@naver.com

해외협력자문위원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남아공	조창원	27-21-447-1634/1515 saka0505@naver.com
수리남	박권현	597-42-2185 donghee_sur@yahoo.co.kr

원양산업
제1124호

발행 : 2020년 8월 15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 서울라-9183호 / 간별 : 월간

발행처 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양재동, 삼호물산B/D A동 6층)

발행인 **윤명길**
편집인

다양한 해외수산투자 정보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OFIS)에서 확인하세요

www.ofis.or.kr



해외진출 정보!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별 수산업 정보 제공

110개국 수산업 국가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국내외 최신정보 제공

국내외 기사 및 자료를 분석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 국내외 원양산업 관련 뉴스
- (원양산업 동향) 매월 생산량, 어가 동향 등 원양산업 현황 정보
- (국제수산물시장 동향) 국제 수산 이슈 및 국제 회의 동향

원양산업 주요국가 최신정보 제공

9개국 명예해양수산관(연안국 현지 교민)이 주요 수산업 동향,
어가, 유가 등 생생한 정보 제공

요청자료가 있을 시 문의해 주시면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업 경험 및 진출기회 공유

진출 업체 전문가 및 학계 전문가 특별기교로 전문가 소개 및 진출기회를
제공합니다.

정부지원사업 정보 제공

업체 투자 희망국 전문가 초청, 조사, 용자 등 진출을 지원합니다.

- 해외에 수산부분(양식, 가공, 유통) 투자 시 사업자금 융자
- 전문가 초청 교육 수요조사 및 일정
- 투자 희망국 수요조사 및 일정



최신 정보가 메일로 쏙! 쏙! E-Newsletter 받아보세요!
아래 기관메일로 E-Newsletter를 신청하시면
매월 최신 정보를 보내드립니다.